

# 2009 한국종합사회조사 면접 지침서

2009. 6.

**성균관대학교 사회리서치센터**

(110-745)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3가 53 / 전화 : 02-760-1270 / 팩스 : 02-744-6169

이메일 : srckgss@skku.edu 홈페이지 : <http://src.skku.edu/> <http://kgss.skku.edu/>

## 목 차

### 제1부 한국종합사회조사 소개

1. 조사 개요 .....	3
2. 조사 내용 .....	4
3. 표집 방법 .....	8
4. 현지 조사 .....	9
5. 자료 이용 .....	10

### 제2부 조사원 면접 지침

1. 조사원의 역할 .....	17
1) 조사원의 임무 .....	17
2) 조사원의 기본 자세 .....	20
3) 조사원에 의한 오류 방지 .....	22
2. 면접 지침 .....	25
1) 사전 준비 .....	25
2) 가구 방문 및 응답자 선정 .....	27
3) 면접 방법 .....	38
4) 결과보고 및 검표, 보완조사 .....	50
3. 2009 KGSS 설문 구성 .....	53
1) 설문 내용 요약 .....	53
2) 설문 문항 설명 및 문항별 주의 사항 .....	54

### 부록

1. 2009 KGSS 조사일정 .....	65
2. 현지조사 조직 및 연락망 .....	66
3. SRC 조직 및 연락망 .....	67
4. 표본추출지역 .....	68
5. 면접 기록표 .....	70
6. 미완료 설문 기록사항 .....	71
7. 조사비 청구(정산)서 양식 .....	72

## **제1부 한국종합사회조사 소개**

## 1. 조사 개요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Korean General Social Survey)는 매년 전국표본조사를 시행하여 한국사회의 구조와 변화 및 국제비교 연구에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는 사회기초 자료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하는 공익적 목적의 사회과학 자료 창출 및 확산 사업이다. 이 조사는 미국 시카고대학교 NORC의 GSS<sup>1)</sup>를 기본 모형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유럽과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시행되는 GSS 형태의 조사들의 내용을 일부 수용하고, 한국사회의 특수성도 적절히 고려해서 설계되었다.

설문지는 매년 반복해서 조사하는 반복핵심설문(replicating core questions), 한국을 포함한 45개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회원국들이 매년 공동으로 조사하는 연차적 주제모듈(ISSP topical modules), 동아시아 4개국인 한국·중국·일본·대만이 격년 주기로 공동 개발하여 조사하는 EASS 주제모듈(EASS biennial topical modules) 특별 연구를 위한 주제모듈(special topical modules)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구성된다.

현지조사는 전국 가구로부터 다단계지역확률표집방법(multi-stage area probability sampling)으로 추출한 표본을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면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현재 한국종합사회조사의 모든 과정은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SRC: Survey Research Center)에서 수행하고 있다.

한국종합사회조사는 여타 조사와 구분되는 몇 가지 중요한 특성을 지닌다. 첫째, 설문구성, 표본추출, 현지조사, 자료처리 등 조사의 전 과정에서 조사방법의 원칙을 엄정히 준수한다. 둘째, 한국사회의 주요 구성 요소들을 폭넓게 조사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총체적 이

해를 돕는 자료를 생산한다. 셋째, 반복핵심설문 이외에도 다양한 모듈들을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주기적·반복적으로 조사함으로써 통시적 사회변화 연구에 기초가 되는 통계 자료를 산출한다. 넷째, 세계의 여러 국가들과 보조를 맞추어 공동으로 모듈을 개발하고,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제 비교 연구를 가능케 한다. 다섯째, 생산된 통계 원자료(raw data)를 공신력 있는 국내외의 사회조사 데이터 아카이브(data archives)에 저장하여 누구나 자료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료 이용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한다.

이처럼 한국종합사회조사는 ‘양질의 사회조사 자료의 공익적 생산과 확산’을 기본 목표로 삼기 때문에 그 자료의 학술적 가치, 활용도, 기여도가 대단히 높다.

## 2. 조사 내용

KGSS는 반복핵심 조사, ISSP 주제모듈 조사, EASS 주제모듈 조사, 특별 주제모듈 조사 등을 통합하여 시행하며, 각 조사의 성격과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반복핵심 조사

반복핵심 조사는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조사로서, 그 설문은 각종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들을 비롯하여 정치·경제·사회 등의 핵심적 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한 200여 개의 변수들로 구성된다. 이 설문은 학술적 중요성이 현격한 주요 사회적 사안들을 매년 반복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사회변화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포착하는데 중점을 둔다. 그 내용은 미국의 GSS를 위시해서 유럽의 20여 개국이 공동으로 조사하는 ESS(European Social Survey), 일본의 JGSS(Japanese General Social Survey), 대만의 TSCS(Taiwan Social Change Survey), 중국의 CGSS(Chinese General Social Survey) 등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문항들에 한국의 사회문화적·국가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문항들(민족통일, 정치이념, 경제노동 문제 등)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ISSP와 EASS 등 국가 간 비교연구를 지향하는 국제조사협력기구에서는 표준화된 분석을 위하여 이른바 ‘표준배경변수’(Standard Background Variables)를 지정해 놓고 있는데,

1) GSS(General Social Survey, <http://www.norc.org/gss>)는 미국 시카고대학교의 NORC(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에서 1972년 최초로 창안되어 지난 37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국제화된 사회조사이다. GSS는 원래 특정 주제의 여러 개별조사들을 연결시키는 공통분모를 찾아내 사회조사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목적으로 구상되었으며, 따라서 대상집단에 대한 특정화 수준을 과감히 낮추고 다양한 주제들을 두루 포괄할 것을 추구한다. 미국에서 GSS의 엄청난 성공은 차후 다른 여러 나라들로 급속히 전파되었으며, 1980년대에 이르면 이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위시해서 전 세계 10여 개국 이상에서 GSS 형태(비록 GSS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의 사회조사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2009년 현재 GSS 형태의 사회조사를 시행중인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서 대략 30여국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상욱, 2009. “대단위 학술 사회조사-진단 및 처방”. 한국학술진흥재단 사회과학 웹진).

이들 대부분은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들로서 KGSS의 반복핵심 설문의 한 부분을 구성한다.

매년 조사되는 한국종합사회조사의 반복핵심 설문들을 주요 항목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정치 관련 문항	국가자긍심, 정치성향, 정치만족도, 정치전망, 지지정당, 선호정당, 정당 평가, 국정운영 평가, 각종 사회정책에 대한 평가, 북한·민족통일 문제 등
경제 관련 문항	경제만족도, 경제전망, 자본주의의 이미지, 대기업의 이미지 평가, 대기업에 대한 정책 평가, 노동조합에 대한 평가 등
사회 관련 문항	사회적 신뢰, 사회집단에 대한 신뢰,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노력에 대한 평가, 신문구독 및 TV시청 등
배경 변수 문항	응답자·배우자·가구주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응답자 부모의 교육수준, 가족구성·가구형태, 가구원수, 동거·비동거 가족수, 가족이 아닌 동거인수, 가구원 중 취업자 수, 종교, 가계소득, 계층귀속, 취업상태, 고용지위, 직업, 산업 등

## 2) ISSP 주제모듈 조사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http://www.issp.org>)는 사회조사 국제 연대 기구이다. GSS의 기본정신인 대상집단 및 연구주체의 포괄화는 특정한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일정 부분 제약하는 한계를 지니게 마련이다. 따라서 구미에서 GSS 형태의 사회조사를 시행 중인 여러 나라들은 1983년 ISSP라는 연대기구를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ISSP에서는 매년 연구주제를 회원국들 간의 협의를 통해 지정하고 결정하며, 주제 모듈(topical module)에 대한 설문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해당 모듈을 각국의 조사를 (survey framework)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권고한다. ISSP 또한 대단한 성공을 거두어서 2009년 현재 전 세계 45개국(한국 포함)이 회원국으로 참여해서 여러 가지 모듈들에 대한 조사 및 국제비교 연구 자료를 생산해내고 확산시키고 있다 (김

상옥, 2009).

ISSP가 지금까지 개발하여 공동으로 조사한 주제모듈은 「정부의 역할(Role of Government)」(1985, 1990, 1996, 2006), 「사회연결망(Social Networks)」(1986, 2001), 「사회불평등(Social Inequality)」(1987, 1992, 1999), 「가족과 성 역할의 변화(Family & Changing Gender Roles)」(1988, 1994, 2002), 「노동지향(Work Orientations)」(1989, 1997, 2005), 「종교(Religion)」(1991, 1998), 「환경(Environment)」(1993, 2000), 「국가정체성(National Identity)」(1995, 2003), 「시민권(Citizenship)」(2004), 「레저와 스포츠(Leisure Time & Sports)」(2007) 등 모두 10가지이다. 2008년 조사의 주제모듈은 「종교 III」이었으며, 이번 2009년은 「사회불평등 IV」이다. 향후 2010년은 「환경 III」, 2011년은 「건강」 등이 예정된 상태이다.

한국에서의 ISSP 모듈 조사는 본 연구소(SRC)가 2003년 ISSP 총회(Obernai, France)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회원기관으로 공식 지명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는데, 2003년 제1차 KGSS에서는 당해 연도 지정모듈인 「국민정체성 III」에 부가하여 「노동지향 II」(1997) 및 「사회불평등 III」(1999) 그리고 「가족과 성 역할의 변화 III」(2002) 모듈의 축약본을 포함시켜 조사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2004년의 제2차 KGSS에서는 당해 연도 지정모듈 「시민권」에 「사회연결망 II」(2001) 모듈을 부가하여 조사하였으며, 2005년 제 3차 KGSS에서는 「노동지향 III」(2005)모듈을, 2006년 제4차 KGSS에서는 「정부의 역할 IV」(2006) 모듈을, 2007년 제5차 KGSS에서는 「레저와 스포츠(Leisure Time & Sports)」(2007) 모듈을 조사하였다. 제6차 KGSS에서는 「종교 III」(2008) 모듈을 조사하였다.

제7차 KGSS에서는 「사회불평등 IV」 모듈로서 귀속지위와 성취지위의 중요성, 차별, 부패, 교육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직업별 실제 소득액과 기대되는 소득액, 정부의 역할, 계급갈등 인식, 주관적 계층의식, 주관적 사회이동, 소득 정당성, 사회에 대한 이미지 등 사회불평등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 3) EASS 주제모듈 조사

EASS(East Asian Social Survey, <http://www.eass.info>)는 동아시아에서 GSS 형태의

사회조사 및 ISSP 모듈조사를 시행중인 4개국(한국, 일본, 중국, 대만)이 ‘동아시아 대륙에 고유한 연구주제’에 대한 조사 및 탐구를 목적으로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가 주도해 신설한 동아시아 사회조사 기구이며, 지난 2003년 설립한 동아시아 지역의 사회조사 연대기구이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ISSP 및 유럽을 무대로 하는 ESS에 이어 EASS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창설된 GSS 형태의 사회조사 협력 네트워크이다. 격년 주기로 모듈주제를 지정하고 설문을 개발해서 각국의 설문들에 산입시키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 (김상옥, 2009). 2006년은 EASS 모듈조사의 원년으로 주제는 「동아시아의 가족」 (Family in East Asia) 이었으며, 2008년에는 「동아시아의 문화와 세계화」 (Cultures and Globalization in East Asia) 이었다. 2006년 모듈은 결혼, 이혼, 성 역할 태도, 가부장제적 가족주의, 가족우선주의, 상속 관련 태도, 남아선호, 효 관련 태도, 가족결속력, 부부결속력, 부부의사결정권, 가사 및 자녀양육 분담실태, 세대 간 지원관계, 일과 가족 관련 태도 및 행위, 배우자 선택 시 부모의 영향력 등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2008년 모듈은 국가별 선호 문화, 미신·풍속에 대한 태도, 선호하는 친구의 특성, 가치관, 지역정체성, 여가문화활동, 외래문화 접촉, 다른 나라 국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국제이주, 세계화/국수주의에 대한 태도, 사회적 연결망 등을 담고 있다. 2010년에는 「건강」 (Health in East Asia)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

#### 4) 특별 주제모듈 조사

특별 주제모듈 조사는 본 연구소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모듈 조사이다. 이 모듈 조사는 반복핵심 조사, ISSP 주제모듈 조사, EASS 주제모듈 조사 등으로도 충족시킬 수 없는 특유의 주제에 대한 필요성(예, 한국사회 특유의 주제 혹은 본 연구소 특유의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사 당해 연도의 ISSP 혹은 EASS 모듈 조사와 유기적으로 잘 통합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3년 동안에는 모두 두 가지 특별 주제모듈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하나는 2005년의 「불평등과 공정성 IV」 이고 다른 하나는 2007년의 「문화 산업과 소비」 이다. 구체적인 2005년의 KGSS에 포함된 특별주제모듈은 「불평등과 공정성 IV」 으로서, 이는 한국

사회과학연구협의회의 주도로 1990년부터 5년 주기(1990, 1995, 2000)로 반복되어온 조사 연구를 2005년부터 본 연구소가 인계 받아 실시 한 것이다. 이 조사는 한국사회 불평등의 현주소 및 한국민이 지각하는 공정성의 정도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2005년의 조사는 네 번째 반복 시도에 해당한다. 이 조사에서는 사회경제적 기회의 불평등 지각, 경력몰입,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불공정 대처 행태, 보수 결정요인 평가, 직업평가 등이 폭넓고도 깊이 있게 다루어졌다.

한편, 2007년의 KGSS에서는 「문화 산업과 소비」 를 특별 주제모듈로 다루었는데, 이 모듈은 본 연구소에서 정보통신연구원과 협력하여 공동 개발한 새로운 모듈로서, 21세기 들어 급증하는 문화산업에 대한 연구 관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 산업과 소비」 모듈에서는 문화적 취향, 탈물질주의의 가치관, 컴퓨터 게임과 인터넷 사용 경험·빈도·강도, 고전음악과 고전미술에 대한 관심, 문화적 자본의 소유, 문화예술활동 참여, 문화예술 소비행태, 문화예술 관련 정보취득방식, 가상공간에서의 문화예술 활동참여와 정보교환 등이 다루어졌다.

2009년 특별주제모듈은 「형평과 공정성 V」 로서, 사회경제적 기회의 불평등 지각, 경력몰입,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불공정 대처 행태, 보수 결정요인 평가, 직업평가 등이 다양하고도 심도 있게 다루어 질 것이다.

### 3. 표집 방법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의 모집단은 전국의 가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이다. 제1, 2차 KGSS에서 표본의 크기는 2,000이었으나 제3차 KGSS부터는 표본오차를 줄이고 유효표본의 수를 늘리기 위하여 그 크기를 2,500으로 증대시켰다. 표본추출방법은 다단계지역확률표집방법(multi-stage area probability sampling)을 사용하며 그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최종 표집블록(Final Sampling Unit) 수를 200개로 한정하고 이를 1차 표집 단위(Primary Sampling Unit)인 전국의 광역시·도의 인구수 분포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 (2) 각 광역시·도로부터 배분된 수만㎞의 2차 표집단위(Secondary Sampling Unit)인 동·읍·면을 인구비례확률표집 원칙을 적용하여 무작위로 추출한다.
- (3) 이렇게 추출된 각 동·읍·면으로부터 한 개의 최종 표집 블록(동의 경우에는 통/반, 면의 경우에는 리)을 무작위로 선정한다.
- (4) 선정된 통/반 또는 리에서 표집원(sampler)이 가구의 표집틀을 직접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모두 12 혹은 13개의 가구를 무작위로 추출한다.
- (5) 표집된 가구 내에서 만 18세 이상 성인 가구원들의 리스트를 작성한 후, 이들 가운데 태어난 월일이 가장 빠른(실제 생일 기준) 가구원을 최종 면접대상자로 선정한다.

이와 같은 표집 절차는 표본의 대표성과 효율성을 최적화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표집단위가 가구와 개인의 복합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가구 리스트를 표집틀로 해서 먼저 가구를 표집한 후 표집된 가구 내에서 한 가구원을 무작위로 선정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다. 둘째, 행정적으로 구획된 지역을 여러 단계에 걸친 집락 선정의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표집뿐만 아니라 현지조사의 효율성까지도 최대화하려는 것이다.

## 4. 현지 조사

현지조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조사는 전국 22개 대학의 현지조사팀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각 팀은 지도교수 1명과 연구원보 1명, 학부생 면접조사원 6~15명으로 구성된다.

기간은 2009년 6월 28일부터 7월 18일까지 3주 동안이나, 조사가 저조할 경우 7월 19일부터 8월 1일까지 보충 조사(2주)를 실시할 예정이다.

면접은 응답자에 대한 면대면 설문조사(face-to-face survey)로 실시하고, 조사원이 응답 내용을 직접 기입하는 방식을 택한다.

현지조사가 거의 완료될 시점부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조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며, 표본 대체 여부를 해당 가구에 전화나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

된다. 그 다음으로 추후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는 완료된 설문지를 일일이 검토하여 응답이 부실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례들에 한하여 보충 조사를 실시하고, 표본 대체가 발견되는 경우 모두 재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2008 KGSS 현지조사에서 완료된 설문은 모두 1,569부였으며, 확인조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 설문은 1,507부이다. 총 표본 2,500건에서 조사불능 19건을 제외하면 완료율은 60.7%이다. 최종 완료 설문현황은 <표1> 과 같다.

<표1> 2008 KGSS 최종 완료 설문부수

총 완료된 설문	1,569부	
> 전화조사를 통해 완료된 설문	1,388부	최종설문 (1,507부)
> 확인조사를 통해 완료된 설문	119부	
> 가구대체/생일대체로제외된 설문	62부	무효설문

## 5. 자료 이용

KGSS는 조사방법의 기본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행되기 때문에 자료의 대표성과 신뢰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그 학술적·정책적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KGSS는 ISSP의 연차 주제모듈을 포함해서 정치, 경제 및 사회의 주요 문제들에 대한 반복조사이기 때문에, 이 자료는 한국사회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중단적 연구와 국제비교연구를 가능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다음에서는 KGSS 자료의 서비스와 기대되는 학술적 및 사회적 활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 1) KGSS 자료 서비스

KGSS의 원자료는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http:// www.kossda.or.kr](http://www.kossda.or.kr))에 영구 보존되어 국내외 사회과학자와 사회과학도 및 기타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된다.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KGSS 자료는 KOSSDA의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

며 원자료 이외에도 설문지, 코드북 및 원자료를 이용한 연구논문이나 저서, 진행 중인 연구들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KOSSDA를 통한 아카이빙 서비스와 별도로 서베이리서치센터는 KGSS 홈페이지(<http://kgss.skku.edu>)를 구축하고 KGSS에 대한 상세한 소개와 연구설계 그리고 코드북 인덱스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KGSS 코드북 인덱스는 변수명, 변수값, 빈도표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KGSS 홈페이지는 KGSS 자료를 분석해서 산출된 각종 연구결과물(학회발표문, 출판저서, 학술지게재논문 등)의 원문 및 색인 목록 등도 제공한다.

KGSS 자료 중 ISSP 주제모듈 자료는 ISSP의 아카이브 「Zentralarchiv für Empirische Sozialforschung, University of Cologne(<http://www.gesis.org/ZA>)」에도 저장되어 다른 회원국들의 자료와 함께 전 세계에 서비스된다. EASS 자료는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 네 나라의 참여기관들을 대표하여 서베이리서치센터가 최근 설립한 「동아시아사회조사자료센터(East Asian Social Survey Data Archive)」(<http://eass.skku.edu>)에서 무상으로 이용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2003년부터 매년 KGSS 통계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발간될 이 보고서 시리즈는 한국사회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참고서가 될 뿐만 아니라 원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는 자료 이용의 긴요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 2) 학문적 활용

### (1) 한국사회에 대한 횡단적 연구

KGSS 자료는 매우 상세한 수준의 기초적인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수들과 함께 주요 정치, 경제, 사회문제에 대한 가치, 태도 및 행위 등을 묻는 방대한 내용의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한국에서 관심이 되고 있는 여러 사회문제 영역에 대한 주제별 탐구를 가능하게 하며 한국사회의 다각적인 측면들을 학문적으로 탐구하는데 그 활용가치가 대단히 높다. KGSS를 활용한 각 분야의 다양한 연구들의 축적은 한국사회의 면모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다.

### (2) 사회변동의 연구

한국사회의 급격한 변화속도와 그에 따른 가치관의 혼란 및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를 보다 분석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기 위해서는 양질의 시계열적 자료가 절실히 필요하다. KGSS는 주요 사회인구학적 속성과 태도 및 행위를 매년 반복하여 조사한다. 이러한 정보들이 해마다 반복 조사된다는 것은 이 자료를 통해 한국사회의 구성요소들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처음 몇 년 동안의 KGSS 자료는 시계열적 연구에서 이용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KGSS가 지속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사회변화의 추세를 읽을 수 있는 기초 자료가 자연적으로 축적되고 있다.

### (3) 국제비교연구

ISSP와 EASS는 주요 국가적 문제들에 대한 국제비교연구를 위한 자료를 창출해내기 위하여 설립된 기구다. ISSP와 EASS의 회원들은 각 국가를 대표하는 주요 사회과학 연구기관들로서 대부분이 각 국가의 주요 대학들과 연계되어 있다. 그만큼 ISSP의 조사는 질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자료를 산출해 왔다. ISSP와 EASS의 모듈들은 주제별로 구성된 개발팀의 장기간에 걸친 연구과정을 거쳐 작성되고 사전검사를 거쳐 완성된다. 지금까지 ISSP의 회원들이 공동으로 조사한 모듈은 「정부의 역할」(1985, 1990, 1996, 2006), 「사회연결망」(1986, 2001), 「사회불평등」(1987, 1992, 1999), 「가족과 성역할 변화」(1988, 1994, 2002), 「노동지향」(1989, 1997), 「종교」(1991, 1998, 2008), 「환경」(1993, 2000), 「국가정체성」(1995, 2003), 「시민권」(2004), 「여가와 스포츠」(2007) 이다. 2009년 현재까지 조사된 EASS 모듈은 「동아시아의 가족」(2006)과 「동아시아의 문화와 세계화」(2008) 등이 있으며, 2010년에는 「동아시아의 건강」이 조사될 예정이다.

ISSP와 EASS는 회원 기관들이 제출한 원자료의 주요 인구학적 변수들(성, 연령, 교육, 경제활동 상태 등)을 해당 국가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료들(예를 들어, 인구센서스 등)과 교차 검토하여, 그 자료가 해당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수준의 자료가 될 수 있는가를 철저히 점검한 다음 아카이빙 한다. ISSP와 EASS 자료는 이같이 엄격한 과정을 거쳐서 서비스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이용한 국제비교연구들은 그만큼 신뢰를 받고 있다.

ISSP와 EASS 자료를 활용한 국제비교연구는 여러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회적, 제도적 일반성의 파악은 물론 문화적, 정치적, 역사적 요인에 기인하는 각 국가의



특수성과 상대성도 파악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 (4) 사회조사방법론 연구

KGSS 자료는 한국사회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조사방법론 연구에도 긴요하게 사용될 수 있다. 국내에서는 해마다 적지 않은 수의 사회조사가 시행되나 대부분이 조사방법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 KGSS는 국제적 기준의 사회조사방법을 엄격히 준수하기 때문에 KGSS 자료 산출 방법은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이루어질 많은 사회조사들의 표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사회에서 행해지는 사회조사자료 수집 방법의 객관성과 과학성을 향상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더 나아가서 KGSS 자료는 각종 방법론적 연구에 이용될 것이다. KGSS 자료를 이용한 방법론적 연구과제들로는 조사표 구성, 각종 설문척도들의 타당성과 신뢰성 평가, 민감한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 그러한 반응과 응답자의 배경변수와의 상호작용, 항목별 무응답 성향과 무응답으로 인한 오차 측정, 표집의 대표성, 국제비교 연구방법 등을 손꼽을 수 있다. 해마다 수집된 KGSS 자료를 통해 자료수집 방법론상의 문제들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일차적으로는 KGSS 자료의 수준은 더욱 향상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국내 사회과학계의 방법론 연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3) 사회적 활용

KGSS, ISSP, EASS 등의 자료는 학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다. GSS 자료의 광범위한 활용과 관련해, GSS를 책임지고 있는 연구자들은 사회과학자의 역할을 기상학자에 비유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Davis Smith, and Marsden 2000). “언론이나 상업적인 여론조사들은 대부분 특정 이슈들을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부상하는 시점에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현실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기상학자들이 가뭄이나 폭우에 상관없이 언제나 강수량 측정을 게을리 하지 않음으로써 일기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사회과학자들이 사회를 읽어내는 데 있어 그러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

이다. 즉, 사회의 현재와 변화에 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보다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자료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 KGSS 자료가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은 앞서 기술된 자료의 우월성을 고려할 때 의심의 여지가 없다.

KGSS의 기초 통계 자료를 수록하고 있는 『한국종합사회조사』보고서 시리즈는 학계뿐만 아니라 정계, 관계, 기업계, 언론계 등에서도 긴요하게 이용될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이 자료집이 한국사회에 대한 심층적 정보를 필요로 하는 정부, 기업, 언론기관, 사회단체 등의 운영자에게 우리 사회 전반에 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고급통계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KGSS는 각종 언론사의 보도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는데, 2003년 첫 조사 이후 KGSS의 주요한 분석내용이 매년 중앙일보의 특집기사로 보도되었을 뿐 아니라 동아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한겨레신문, 한국경제, 문화일보 등 주요 일간지와 부산일보, 경북일보, 경인일보 등의 지역신문, 코리아타임즈, 코리아헤럴드 등의 영자신문에서도 KGSS자료를 이용한 다양한 주제와 내용을 기사화하여 보도한 바 있다. 아울러, KBS, MBC, SBS의 TV 뉴스들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에서도 KGSS를 활용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소개된 바 있다.

### 4) 교육과의 연계 활용

KGSS는 교육 자료로서도 이용 가치가 매우 크다. 다시 미국 GSS를 예로 들자면, 매년 약 25만 명의 학생들이 GSS 자료를 활용하는 강좌를 수강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출판된 226종의 대학 교재에 GSS 자료가 인용되었으며, 많은 대학 교수들이 사회조사방법, 사회통계학 및 관련 학과목에서 GSS 자료를 이용하여 가르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조사방법과 통계학 과목의 실습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KGSS는 ISSP의 주제모듈을 포함하여 조사내용이 광범위하고 매년 시행되기 때문에 여기서 산출되는 자료는 많은 시계열적 연구와 국제비교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과학계열의 석·박사 대학원생들이 KGSS를 학위 논문에 적지 않게 이용하고 있으며, 점차 그 활용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제2부 조사원 면접 지침**

## 1. 조사원의 역할

현지조사는 KGSS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조사 내용, 표집 방법, 혹은 조사 팀 조직이 아무리 훌륭히 구성되어도 현지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사 전체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지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조사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 1) 조사원의 임무

조사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자신에게 맡겨진 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성공적인 조사는 결과적으로만 이야기하면 표본으로 정해진 응답자를 만나서 모든 질문에 대한 응답을 빠짐없이 받아내는 것이다. 그렇지만 성공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조사원이 숙지하고 수행해야 할 임무가 매우 많고, 이 임무들을 소홀히 할 경우 성공적인 조사를 이루어내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 절에서는 성공적인 조사를 위해 조사원이 숙지하고 수행해야 할 임무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 (1) 조사 완결

조사원이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맡겨진 조사를 완결하는 것이다. 조사원은 자신이 맡은 지역에서 최소한 65% (예를 들면, 12 케이스 중 최소 8 케이스)의 응답률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조사원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이자 또한 가장 어려운 임무이다. 조사의 완결은 결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하건대 자신이 맡은 지역에 대해 조사를 완결 짓는 것이 조사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것을 각 조사원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 (2) 원칙에 따른 조사

조사를 완결하였다고 해서 성공적인 조사라고는 할 수 없다. 성공적인 조사는 KGSS 조사 방법 원칙에 근거하여, 반드시 그 원칙에 따라서 수행되었을 때 비로소 성공적으로 완결 되는 것이다. 부연하면, KGSS 조사 원칙을 따르지 않은 조사는 비록 조사를 성사시켰

다고 할지라도 완결된 조사로 볼 수 없고, 원칙에 맞는 조사가 될 때까지 재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이 조사의 기본 방침이다. 조사원은 앞서 소개된 KGSS 조사 개요, 표집 방법, 조사 방법의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하나의 조사를 반드시 KGSS 조사 원칙에 따라서 수행해야만 한다. 조사현장에 나갔을 때 조사원이 기억하고 준수해야 할 가장 중요한 KGSS 조사 원칙 두 가지를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 ✓ 조사 원칙 1: 가구 대체 불가

KGSS 조사는 과학적 신뢰성을 갖춘 정교한 표집방법을 이용한다. 과학적으로 신뢰할 만한 표집 방법이라고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그 방법을 통해서 추출된 표본이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를 골고루 대표할 만한 대표성을 가지는 표본인지의 여부이다. KGSS가 이용하는 「다단계 지역 확률 표집법」은 바로 그런 대표성이 있는 표본 추출을 위해 연구·개발된 방법으로, 이 방법을 통해서 선정된 2,500 가구는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가구라 불리기에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조사원이 현장에 나갔을 때 조사 대상 가구에서 사람을 접촉하기 힘들거나, 가구원 및 응답자가 조사에 협조해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임의로 가구를 대체해 버린다고 하자(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한 가구 대체가 하나라도 일어났을 때, 그 하나의 대체 건으로 인해 우리는 KGSS의 표본이 대표성을 가지는 표본이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되고, 결국 KGSS 자료는 신뢰할 만한 자료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서베이리서치센터에서는 완결 설문지 하나하나에 대해 꼼꼼한 검토 작업을 수차례 진행하여 가구대체가 일어난 케이스를 거의 전부 찾아내고, 그러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재조사를 하도록 한다. 결국 가구대체는 서베이리서치센터에게도 조사원에게도 크나큰 경제적, 인적, 시간적 손실을 유발하는 중차대한 과오이다.

기억하자. **조사원의 임의대로 표본가구를 결코 대체해서는 안 된다.**

### ✓ 조사 원칙 2: 응답자 대체 불가

가구대체 불가의 원칙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원칙은 응답자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KGSS의 최종 표본, 즉 응답자 선정 방식은 앞서 설명된 바 있다. 표본 가

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 가구원 중 생일이 가장 빠른 사람'이 바로 응답 대상자이다. 조사원의 임무는 표본 가구를 방문하여 응답 대상자를 가려내는 일부터 시작되는데, 조사원은 반드시 선정된 그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 응답자로부터 조사협조를 받아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조사원은 응답자로부터 조사승낙을 받아내기까지 수차례의 방문을 시도해야만 하는 등 생각지도 않은 갖가지 난관에 부딪치게 될 수 있다.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조사원은 가구원의 중용에 의해서, 혹은 자신의 인내의 한계로 인해서 응답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조사 대상을 대체하고 싶어질 수 있고 과거 조사에서 그런 일이 실제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가구대체가 절대 불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응답자대체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과오이다. 그 이유는 가구대체불가의 이유와 같다. 즉, 응답자대체가 하나라도 일어났을 때, 그 하나의 대체 건으로 인해 우리는 KGSS의 표본이 대표성을 가지는 표본이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되고, 결국 KGSS 자료는 신뢰할 만한 자료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가구대체 사례와 마찬가지로 응답자대체가 발견 되었을 때, 조사원은 해당 가구를 재방문하여 조사를 다시 실시해야만 한다. 결국 응답자대체는 가구대체와 마찬가지로 서베이리서치센터에게도 조사원에게도 크나큰 경제적, 인적, 시간적 손실을 유발하는 중차대한 과오이다.

기억하자! **조사원은 응답자를 결코 대체해서는 안 된다!**

## KGSS 조사는 핵심 원칙 두 가지를 반드시 지킵니다.

**가구 대체 절대 불가!**

**응답자 대체 절대 불가!**

### (3) 조사 기간 준수

2009 KGSS 조사 기간은 6월 28일~7월 18일, 3주간으로 정해져 있다. 조사원은 KGSS 조사 원칙에 따른 조사를 이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조사 기간 내에 조사를 완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조사 방법론상의 이유로, 한 조사가 동일

한 기간 내에 이루어짐으로서 시간의 변수를 최대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연하면, 시간이라는 것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및 한국사회에 많은 예기치 않은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변수로서 그러한 변화는 결국 응답자의 응답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결국 조사의 오류를 증가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오류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조사원은 동일한 시간, 즉, 정해진 3주간의 조사 기간에 모든 조사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조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응답자에게도 조사원에게도 조사는 더욱 힘들어지는데, 이는 정해진 기간 내에 조사를 완결해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 (4) 연구원보 및 서베이리서치센터와의 커뮤니케이션

연구원보 및 서베이리서치센터와의 커뮤니케이션은 조사원을 조정하고 감시하는 검열 체계라기보다는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오류를 최대한 예방하고 해결함으로써 조사원이 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돕는 지원체계이다. 조사원은 조사의 전 기간 동안 자신의 조사 진행상황과 절차를 연구원보와 항상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설문지는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연구원보에게 가능한 한 즉시 전달하여 검토한 후 SRC에 우송할 수 있도록 한다. 매주 연구원보와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면접을 실시하고, 그 과정을 연구원보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가구원 및 응답자와의 접촉 과정에서 조사원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예기치 않은 사고 및 여러 긴급한 난관이 발생했을 때 조사원은 연구원보는 물론 서베이리서치센터에도 연락을 취하는 것이 좋다. 그 외에도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사원 개인에게 발생하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도 연구원보 및 서베이리서치센터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 2) 조사원의 기본 자세

실제 면접에서 조사원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모든 설문에 대해 빠짐없이 유효한 응답(valid response)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효한 응답이란 '모르겠다', '선택할 수 없다' 등의 응답이 아닌, 실제 값이 있는 응답으로 조사원은 반드시 유효 응답을 받아 내고

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면접에 임해야 한다. 유효응답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모르겠다', '선택할 수 없다' 등의 응답은 나중에 자료를 분석할 때 분석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결국 자료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KGSS 조사가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자기기입식 조사방법이 아닌 응답자와의 면대면 면접 및 조사원이 설문지를 기입하는 조사방법을 택하는 이유도 바로 유효 응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조사원은 면접 시 모든 질문에 대한 유효 응답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면접에 임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조사원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조사원은 다음과 같은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 (1) 책임감

조사원에게 요구되는 기본자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맡은 조사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완결하고자 하는 책임감으로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조사원이 자신의 임무를 소홀히 하여 조사를 성공적으로 완결하지 못 했을 때, 이는 결국 다른 누군가가 그 미완성 케이스를 담당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런 상황은 조사원뿐만 아니라, 응답대상자, 타 조사원, 연구원보, 그리고 서베이리서치센터, 이 모든 관련자들에게 많은 심리적, 시간적, 물리적 피해를 주는 것이기에 각 조사원은 자신이 맡은 임무를 자신 스스로 완수하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해야 한다.

#### (2) 자발성

조사원은 매일 매일 일을 하라고 독촉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자기 스스로의 책임 아래에서 자발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진취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조사원은 연구원보와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하에 그날그날의 조사 계획, 목표설정, 조사 전략, 조사 성과, 등을 꼼꼼히 점검, 평가, 재조정하는 등 자발성을 가지고 조사에 임해야 한다.

#### (3) 자신감

KGSS는 결코 쉬운 조사가 아니다. 조사원은 조사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조사원이 알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조사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목

표량을 결국 달성한다는 것이다. 조사원은 이 점을 기억하고, 어떤 어려움에 부딪치게 되더라도 조사환경에 적응하고, 응답자를 설득하여 끝까지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해야 한다.

#### (4) 유연성

조사원은 다양한 배경, 연령, 생활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면접하게 되므로, 자신과 다른 생활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과도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짜증스러운 상황, 예컨대 응답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좋지 않은 날씨에 밖에서 면접을 해야 한다면, 혹은 면접 시간과 날씨를 바꾸기 위해 응답자가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한다면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주변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 (5) 자부심

조사원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KGSS 자료는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학자 뿐 아니라 공공정책입안가, 학생, 일반 국민에게도 전달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실제로 그간 KGSS의 자료 및 자료를 이용한 연구결과는 조사방법과 관련된 학계 내외의 교수학습 기관 혹은 개인, 정책 수립 및 행정 수행 관련한 정부부처, 신문·텔레비전 등의 언론에도 인용 혹은 이용되어 왔다. 이처럼 KGSS 자료가 사회 각 영역에서 그 지명도가 높아져 가는 중요한 이유는 국내의 그 어떤 자료보다도 신뢰성이 높고, 한국 사회 변화의 흐름을 연도별로 비교할 수 있는 등 이용 및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자료이기 때문이다. 조사원은 KGSS 자료의 학문적·사회적·역사적 가치를 인지하고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 조사를 통해 습득한 경험들은 후에 서베이(survey)와 관련된 직업을 갖는데 훌륭한 밑받침이 될 것이다.

### 3) 조사원에 의한 오류 방지

앞서 면접에서는 유효응답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보다 엄밀히 말하면 **응답자의 의사를 최대한 솔직하게 반영하는 유효 응답**을 받아내는 것이 조사에서 가장 중

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응답자가 면접 당시 주위의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개입으로 인해 면접을 거부한다거나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한 응답을 한다면 이는 외부적 요인이 조사에 영향을 미친 것이기에 결국 자료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면접 당시 응답자에게 편견을 줄 수 있는 환경에는 가구원 개입 등의 요인도 있을 수 있으나, 조사원이 바로 그러한 편견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조사원이 응답자의 면접 협조 및 응답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자료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게 되는 것을 '조사원에 의해 발생하는 오류'라고 한다.

조사원에 의해 발생하는 오류에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 (1) 첫 인상

조사원의 첫 인상은 응답자의 면접 협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조사원의 목소리, 억양, 얼굴 표정, 외양, 행동, 태도 등에 따라서 응답자가 면접에 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사원은 이 점을 명심하여 호감을 줄 수 있는 첫 인상을 심어 주기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2) 언어 구사 및 목소리

응답자와 첫 대면을 했을 때, 혹은 응답자가 아닌 다른 가구원과 첫 접촉을 했을 때 처음 약 30초 동안 조사원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 면접의 성사가 좌우된다. 조사원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자신과 조사에 대한 소개를 해야 하며, 특히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숙지함으로써 응답자의 관심을 유발해내야 한다. 조사원은 정확한 발음, 자연스런 단어와 문장을 구사하기 위해 응답자를 만나기 전에 충분한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 (3) 복장

종종 첫인상이 면접의 성사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적절한 의상(신발, 화장, 장신구 등 포함)을 갖추는 것이 좋다. 적절한 의상은 면접이 어떠한 상황에서 진행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수입이 낮은 가구의 사람들을 면접하게 될 경우, 지나치게 화려한 옷을 입는 것은 응답자로 하여금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반면에 의사나 교수 등 수입이 높은 사람을 면접하거나 직접 직장으로 찾아가야 할 경우 그 분위기에 적절히 조화를 이루

는 옷을 입고 가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상황에서 조사원은 항상 단정하면서도 전문가적인 분위기를 풍길 수 있는 의상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능한 배격해야 할 의상으로는 모자, 슬리퍼, 화려한 장신구 등을 들 수 있다.

### (4) 몸짓, 표정

몸짓이나 얼굴표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를 비구어(non-verbal) 오류라 하는데 비구어 오류가 설문조사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응답자가 말을 할 때 조사원이 눈썹을 올리는 행위 하나에 의해서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심지어 미소를 짓는 것조차도 응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사원은 응답자가 자신의 태도에 의해 영향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조사원은 응답자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도록 하나 동시에 전문가적인 자세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언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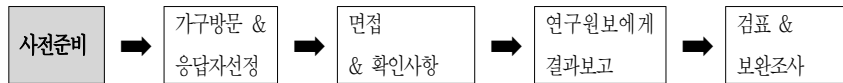
### (5) 언어

조사원의 질문, 프로빙(probing), 심지어 질문과 질문을 연결하는 말이나 응답자의 질문에 대한 조사원의 말 한마디도 응답자의 응답에 영향을 미친다. 조사원은 특히 응답자의 응답과 직접 관련이 있는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를테면, 응답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되며, 응답자가 인자해 보인다면가 하는 등 응답자의 성격에 대한 말을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 2. 면접 지침

### 1) 사전 준비

조사원의 주요 업무인 현지조사는 다음과 같이 사전준비, 가구방문 시 응답자 선정, 면접, 결과보고, 검표 및 보완조사로서 총 5단계로 진행된다.



첫 번째 단계로서, 사전준비 단계이다. 조사원은 조사현장에 나가기에 앞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 사전 준비에는 설문지 숙지, 표본 가구 위치 및 특성 파악, 조사 도구 준비 등이 포함된다.

#### (1) 설문 내용 및 방법 숙지

KGSS 설문지는 여타 설문조사에 비해서 내용이 길고 설문 방법에 있어서도 숙지해야 할 사항이 많다. 조사원은 조사 현장에 나가기에 앞서 설문 내용, 설문 순서 등을 완벽히 이해한 후 조사에 임해야 한다. 조사원 스스로가 설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면접에 임했을 때 그 면접이 원활히 수행될 리 만무하다. 설문 내용을 이해해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응답자가 설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여 조사원에게 질문을 했을 때 조사원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 위함이다.

또한 조사원은 설문 방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면접에 임해야 한다. 설문 방법에는 설문지를 읽어 주는 방법, 응답 범주를 읽어 주는 방법, 보기카드 사용법, 같은 내용이 여러 번 반복되는 설문의 경우 읽어 주는 방법, 응답자가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조사원의 대응 방법, 등, 설문 진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요령이 포함된다. 조사원은 이 모든 방법들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칙에 맞는 면접, 돌발 상황에 유연히 대처하는 면접이 되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

#### (2) 표본가구 리스트 수령

조사원들은 연구원보로부터 담당지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최종표본가구 리스트를 받게

된다.

〈표2〉최종 표본 가구 리스트 예시

조사구 번호 : 23 할당 가구수 : 12  
표본 지역 : 서울 시 동작 구/읍 대방 동 16 통/리 3,4,5 반

표 본 들

가구번호	가 구 주 소	세 주 소	비 고
1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89-6번지 B01 (16/3)	78년 10월경으로 동대기방 등식대량	
2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89-6번지 B02 (16/3)		
3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89-6번지 B03 (16/3)		
4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89-6번지 201 (16/3)		
5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89-6번지 202 (16/3)		
6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89-6번지 203 (16/3)		

조사원들이 방문하게 될 표본가구는 이미 해당 지역 담당 연구원보들이 직접 방문해서 표본가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였으며, 서베이리서치센터에서는 이 주소로 조사 협조를 부탁하는 편지를 발송한 상태이다. 조사원은 해당 지역에 조사를 나가기 전에 연구원보에게 조사지역과 표본 가구의 위치 및 특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조사에 임해야 한다.

〈표2〉에서 ‘조사구번호 23’은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에 할당된 조사구번호를 의미한다. ‘할당 가구번호’는 대방동에 12가구가 할당되었다는 의미이다. 조사원들은 모든 설문지와 ‘표본지역별 면접진행 기록표’에 해당 조사구번호와 표본가구번호를 기입하여, 조사한 가구와 완료한 설문지와와의 혼동이 일어나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 (3) 표본 가구 찾기 및 방문 시 주의 사항

표본가구를 찾는 데 주로 이용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동/읍/면사무소를 방문해서 관계 직원의 도움을 받거나 관내도를 이용하거나 동네의 부동산, 동사무소에서 통반장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도움을 요청하며, 시골 마을의 경우에는 이장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지도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세탁소나 음식점 등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업소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조사현장에 나가기에 앞서 조사원이 준비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으로는 표본 가구의 특성에 대한 이해이다. 조사원은 연구원보로부터 조사 대상 지역에 대한 정보와 위치, 찾아 가는 방법 등을 소개받게 될 텐데, 연구원보의 협조 하에 표본 가구의 특성에 대해 가능한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특히 도움이 되는 정보에는 표본 가구가 있는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 표본 가구 주변의 특이 사항, 가구방문 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조사원이 특정 가구를 방문할 때 갖추어야 할 외양적, 심리적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함인데, 특히, 앞서 설명한 조사원의 첫 인상, 의상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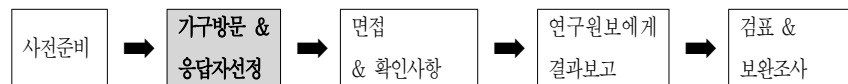
#### (4) 조사 도구 준비

설문내용과 방법을 숙지하고, 표본가구의 특성을 파악하고 나면 조사원은 조사현장으로 나갈 준비가 거의 된 셈이다. 조사현장에 나가기에 앞서 조사원은 조사에 필요한 모든 도구를 빠짐없이 갖추었는지 마지막 점검을 해야 한다. 조사도구에는 조사원 신분증, 본인 소속 학교 학생증, 조사 협조 공문, 서베이리서치센터 및 KGSS 소개 브로셔 등 조사원 및 KGSS 소개와 관련된 도구; 설문지, 보기 카드, KGSS 자료집, 조사 진행 기록표, 응답자에게 줄 인센티브 등 면접과 관련된 도구; 그 외 필기도구 등이 포함된다. 조사도구의 양이 많은 만큼 조사원은 누락되는 도구가 없도록 철저히 확인한 후 조사현장에 나가야 한다.

## 2) 가구 방문 및 응답자 선정

### (1) 가구 방문

두 번째 단계로서 가구 방문 및 응답자 선정단계이다.



우선 가구방문은 표본가구를 방문하면 우선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방문 목적을 설명해

야 한다. 방문시에는 조사원 신분증을 착용하고, 학생증 등을 제시하며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명확히 밝혀 불필요한 의심을 사지 않도록 주의한다. 지방에 소재하는 대학에 다니는 조사원의 경우 KGSS를 주관하는 본 연구소보다는 자신의 학교를 밝히는 것이 지역 주민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경우도 있다.

조사원은 브로셔 등을 제시하면서 조사의 목적을 잘 설명하되, 이 때 KGSS가 학술조사라는 점, 전 세계 40여 주요 국가들이 공동으로 참가하고 있는 국제적 조사라는 점, 그 가구 및 응답자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뽑혔기 때문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연구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야 한다. 또한, 자료 처리 과정에서 **응답자의 이름 등의 개인 정보는 제거되고 응답 내용은 오직 통계적으로만 처리되기 때문에 비밀이 절대 보장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 준다.** 이 때 설문지 표지에 있는 인사말을 그대로 읽어 줄 필요는 없다. 조사원이 이 내용을 숙지한 후에 자연스럽게 설명을 이어나가는 것이 좋다.

응답자에게 줄 사은품은 면접 시작 직전에 자연스럽게 전달함으로써 협조를 얻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면접 종료 후에 사은품을 전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도 있으므로 조사원은 그 때 그 때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면접을 하도록 설득하는데 보통 5분 내지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 설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응답자 혹은 가구원과 얼굴을 대면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해당 가구에서 약간이라도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표본가구 혹은 응답자가 한 두 번 거부했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 가구 구성원에 따라서도 거부정도가 다르며, 계속해서 방문함으로써 조사원의 얼굴을 익숙하게 하는 것은 협조를 이끌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 (2) 가구 방문 및 면접 시 당면하는 문제와 대처 방법

조사원은 처음 가구를 방문하는 단계로부터 성공적으로 조사를 완결하기까지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에 직면하게 되고, 그 때 그 때마다 그 어려움들을 요령껏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재차 강조하지만 이 조사는 쉽지 않은 조사이고, 쉽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보람도 큰 조사임을 기억하고, 끝까지 책임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조사의 완결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이 절에서는 가구를 방문하는 시점부터 조사를 완결하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상황들과 그때의 대처 요령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조사원은 여기의 각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비된 자세로 조사에 임하도록 한다. 그러나 염두에 둘 것은, 여기에 소개된 내용들 외에도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과 여기에서 제시된 대처 요령이 꼭 정답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 나아가서, 그러기에 상황에 따라 조사원의 기지와 소신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이다.

#### ① 아파트 경비원이 방문을 거부할 경우

추출된 표본지역이 아파트 단지인 경우 간혹 경비원이 조사원의 방문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때에는 학생신분임을 강조하고 판매나 광고를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 학술적인 목적의 설문조사라는 사실로 경비원을 잘 설득해야 한다. 혹은 설문지나 인센티브를 가방에 넣은 후 조사원이 아닌 것처럼 출입을 할 수도 있다.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서베이리서치센터에 연락해서 조치를 받는다.

#### ② 바쁘다고 말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해서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

언제 시간이 나는지 여쭙어 본 후 “다시 찾아뵙겠다”라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다음에 방문을 하는 것이 좋다. 조사의 목적 등을 잘 설명하고, 같은 지역의 다른 가구에서도 이미 조사를 했다는 것을 부각시킨다. 그리고 편안한 시간과 장소에서 응답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지금 많이 바쁘시면 한시간 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와 같이 구체적인 방문 시간을 정해서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약속한 시간에는 반드시 재방문을 하여야 한다. 또한 전혀 면접에 응해줄 기색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다보면 응답자를 설득시킬 수 있으므로 한 두 번 방문한 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

#### ③ ‘한국종합사회조사가 뭔데요? 당신을 어떻게 믿어요?’ 불신하는 경우

연구소 및 KGSS 브로셔를 보여 주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정 못 믿겠다면 연구소로 전화를 해 보시라고 설득한다. KGSS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간략하고 전문성이 드러나도록 설명하도록 한다.

#### ④ ‘왜 꼭 우리 집을 해야 하느냐’며 다른 집에 가보라는 경우

응답자의 가구가 전국 만18세 이상의 성인을 대표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선정되었고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연구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야 한다. 응답자가 아닌 이웃분에게 설문조사하는 것은 대표성을 어긋나게 하는 것이기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시킨다. 그리고 이렇게 수행된 자료는 일반 국민, 공공정책입안자, 학자들에게 전달되는데, 응답자의 의견에 따라 연구결과가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 준다. 표본으로 뽑힌 다른 가구는 이미 참여 했으며, 해당 가구에서 반드시 면접을 해야 하므로, 오늘 면접이 어려울 경우, 다음에 다시 방문을 할 것임을 강조한다.

### 한국종합사회조사는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과 조사협조 설득은 이렇게 해보자!!

KGSS는 2002년부터 7년째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에서 주관하는 전국적인 사회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기관인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지난 7년간 연구비를 전폭 지원하고 있을 만큼 학술적 가치가 높고 신뢰할만한 조사입니다. 이 조사의 목적은 한국인의 가치관과 행동방식, 일상생활 양식 등 다양한 내용을 매년 조사해서 한국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자료를 만들고, 또한 어렵게 만든 이 자료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산하는데 있습니다.

이 조사는 성균관대, 이화여대, 서강대, 한림대, 부산대, 충남대, 경북대, 전북대 등 전국 22개 대학에서 사회학, 정치학, 행정학, 사회복지학 등을 전공하는 교수님을 비롯해서 대학생, 대학원생 200여 명이 참여하며 여름 한 달 동안 조사합니다. 응답해주신 자료는 학자들의 연구논문에 이용되거나, 학생들의 석사·박사 공부 논문에 직접 사용되고, 중앙일보 같은 일간신문의 기사 작성을 위한 자료로도 널리 이용됩니다.

이 조사는 매우 힘든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7년째 지속되고, 그간 한국사회의 각 분야에서 유용하게 널리 사용될 수 있게 된 것은 선생님처럼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응답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실례가 되는 것은 알지만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⑤ “꼭 생일이 빠른 사람이어야 하느냐”며 아무한테나 받으라는 경우

선정된 가구에서 최종적으로 한 분의 응답자를 전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무작위로 공정하게 추출하기 위해서 연구소에서 정한 방법이 생일이 빠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다. 한 가구에서 생일이 빠른 사람은 천차만별일 것이므로 응답자 추출상의 예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 ⑥ 응답자가 없고 다른 가구원만 있을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에 면접 약속을 받아낸다. 응답자를 설득할 때, 직접 만났던 가구원의 영향력이 매우 크므로 이 가구원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약속을 받아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응답자의 연락처나 응답자가 주로 언제 집에 있는지 물어보라. 응답자가 직장인이라면 직장으로 전화할 수 있는지 확인한 후 전화번호를 묻는다. 만일 대답해주지 않을 경우 응답자가 언제쯤 집에 있을 것 같은지 추측해 본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가 있을 것 같은 경우 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 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아이들만 있는 경우, 아이들에게 집 전화를 물어 전화번호를 파악한 후 저녁 때 정중하게 전화를 시도할 수 있다. 이 때 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준 다음 시간 약속을 잡는다. 다시 방문을 한다면, 요일과 시간을 바꿔가며 방문을 하고 가급적 주말이나 주중의 이른 저녁 시간대를 활용하는 편이 좋다. 농촌의 경우 농사철에는 논·밭에서 주로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다시 방문을 했는데 여전히 응답자가 없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다른 가구원들과 친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조사협조가 더욱 용이해 질 수 있다.

#### ⑦ 집에 사람이 있으면서 없는 척 하는 경우

간혹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집안의 소음이 없어지고 집에 아무도 없는 척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밖에 서서 방문 목적을 간단히 설명한다. 그리고 준비해 간 메모지에 방문 날짜, 요일, 시간 그리고 재방문 일자를 기록하여 명함과 함께 두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돌아가는 것이 좋다.

#### ⑧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 없거나 외국인이 사는 가구인 경우

이런 경우는 KGSS 표본에서 제외되므로 서베이리서치센터에 바로 연락을 주어야 한다.

###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해보자!!

#### 왜 우리집에서, 왜 생일이 제일 빠른 사람이, 왜 꼭 내가해야 하나?

이 조사는 전 세계 40여개 국가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조사이고, 조사에 참여하는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18세 이상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뽑기 위해서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 조사의 경우에는 ‘다단계지역확률표집방법 (multi-stage area probability sampling)’이라는 방법으로 전국의 지역별 인구수와 가구수를 고려해서 가구와 응답자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그 절차를 간단히 말씀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전국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인구수에 비례하여 200개 지역을 선정하고(예: 서울 41지역/ 인천 11지역/ 부산 15지역/ 경기 45지역/ 강원 6지역/전남 8지역 등), 그 200개 지역에서 다시 인구수에 비례해서 동·읍·면을 선정하고, 통·반·리를 선정하고, 선정된 통·반·리에 있는 전체 가구 수에서 무작위로 12 혹은 13개의 가구를 뽑게 됩니다. 즉, 지역별 인구수와 가구수를 고려해서 200개 지역 선정하고, 각 지역당 12~13개 가구를 방문해서 총 2,500명 (200 지역, 12~13 가구)의 응답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종 응답자를 생일이 제일 빠른 사람으로 정하는 이유는 선정된 가구에서 마지막 한 분의 응답자를 전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무작위로 공정하게 추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시다시피 생일은 성별이나 연령이나 직업유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니 이러한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응답자를 뽑는다면 응답자 추출상의 예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응답자들을 선정하게 되면 가구 방문 시에 만나기 쉬운 분들 (예: 주부님이나 일이 없는 분들, 혹은 노인분들)이 응답할 확률이 높을 것인데 그 결과 대한민국 전체의 응답자 중 대다수가 여성이며 무직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그런 결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결과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선생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⑨ 개인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경우

이러한 응답자에게는 설문내용이 통계적으로만 처리되기 때문에 비밀이 절대로 보장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공공에 발표될 때 응답자의 이름이 절대로 알려지지 않으며, 어느

누구도 응답자의 정보를 알아낼 수가 없음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20%의 응답자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라는 식으로 통계적으로만 처리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됨을 재차 강조한다. 이름과 연락처를 적는 이유는 연구소에서 설문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사원이 제대로 조사를 수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며 신상에 대한 정보는 절대 보장됨을 강조한다.

#### ⑩ 노령, 질병, 장애가 있는 응답자의 경우

간혹 조사원이 응답자가 노령, 질병, 장애 등의 문제로 설문이 불가능할 것 같다고 판단해서 생일이 그 다음으로 빠른 사람으로 조사를 해도 되는지 연구소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응답자의 개인적인 특성으로 인한 문제이기에 응답자 대체가 불가하다. 노인, 질병이 있는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이기에 그렇다. 이런 경우는 조사가 힘들더라도 되도록 설문을 진행하여 응답을 받아내도록 하고 정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연구원보에게 알리도록 한다.

#### ⑪ 응답자가 남자 조사원을 꺼리는 것 같다고 판단될 경우

주위에 위험한 이웃들이 많은지, 이 응답자가 지리적으로 고립된 곳에 있지는 않은지, 혹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등을 잘 살펴본다. 비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고, 눈 접촉을 많이 하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한다. 신분증과 본 연구소 안내책자 등을 건넨 후, 실내에서 면접하는 것을 불편해 한다고 생각될 경우 실외에서도 면접할 수 있음을 주지시킨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도 있다: “아주 날씨가 좋는데 귀하가 원하신다면 밖에 평상에서 얘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에는 정중하게 인사를 한 후 다음에 다시 방문하겠다는 말을 남겨놓는다. 재방문 시에는 여성 조사원과 동행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 ⑫ 노인이나 저소득층의 경우

노인이나 저소득층 응답자들의 많은 경우 자신은 잘 모른다면서 면접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조사원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선 모르겠다고 응답을 하면 된다고 하면서 설득을 한다.

#### ※ 예제

어르신께서 대한민국 전체의 노인분들을 대표해서 뽑으신 것이니 어르신의 의견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20, 30대의 생각이 중요한 만큼 60,70대 어르신들의 생각도 또한 중요해요. 그러니 꼭 응답 해주세요.

#### ⑬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경우

이 조사가 연구가 응답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정 등에 이용될 수도 있는 중요한 연구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들이 면접시간과 장소를 스스로 선택할 수도 있음을 알려준다.

예를 들어, (1) 귀하가 얼마나 바쁜지 잘 알고 있습니다. (2) 저는 귀하가 편한 장소에서 언제든 면접을 할 수 있습니다. (3) 귀하가 편한 시간에 여기에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4) 귀하의 관점은 연구의 성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5) 귀하가 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등을 말해줄 수 있다.

#### ⑭ 응답자가 응답을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응답자가 계속해서 거부하면 면접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친절히 대해 조사원에 대한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한다. 조사원이 면접을 위해 시도한 모든 과정을 연구원보에게 일단 설명하고 다음 과정을 상의한다.

#### ⑮ 응답자가 다른 일들로 분주한 경우

간혹 자영업자의 사업장으로 조사하러가거나 논이나 밭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면접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옆에서 잠시 일을 거들어 주는 등의 행동을 보이면 응답자가 호의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아이들과 잠시 놀아주는 것도 좋다.

#### ⑯ 면접도중에 응답을 더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계속 면접을 시도한다. 면접이 너무 길어 응답자가 지루해 할

경우에는 설문 중간 중간 쉬어가면서 하는 것도 좋으며 만일 특정 문항 예컨대, 학력이나 수입 등을 말하는 것을 꺼릴 경우 비밀이 보장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한다. 응답자가 시간상의 이유로 거부를 할 경우에는 다음에 면접할 날짜를 잡고 나온다.

#### ⑩ 설문지를 두고 가면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

2500명의 응답자 모두가 면접 방식으로 설문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여기에 변동이 생기면 조사방법이 일관되지 않아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설문이 복잡한데다가 중간 중간 비례당으로 건너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사원이 직접 묻고 응답자가 대답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정확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 ⑪ 다른 가구원이 응답자의 조사를 만류하는 경우

다른 가구원이 응답자의 조사를 만류하는 경우는 가구원이 없이 응답자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가구원과 마주칠 때마다 항상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 ⑫ 빈 집이거나 응답 대상자가 장기 출타 중인 경우

빈 집인 경우 주위 사람들이나 복덕방 등에 물어서 이사 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얼마간 비워져 있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한다. 만약 리모델링 등 공사 중인 경우에는 역시 주위 사람들이나 복덕방 등에 물어서 공사가 끝나는 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한다. 이런 경우는 정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야 가구를 새로 추출할 수 있다.

장기출장을 간 응답자에 경우에는 우선 가구원에게서 응답자가 출장에서 언제쯤 들어오는지 정확히 파악하도록 한다. 간혹 가구원이 응답자가 오랫동안 안온다고 하면 조사원들이 다시는 안 올거라 생각하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구원을 의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게 조심하면서 응답자가 출장에서 돌아올 날짜를 얻어내도록 하고, 날짜가 파악이 되시면 연구소에 연락을 주도록 한다. 이 경우 역시 연구소에서 정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가구를 새로 추출할 지에 대해 결정한다.

반면에 출산 후 친정에 간 여성 응답자의 경우 집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친정집으로 찾아가도 되는지 양해를 구해보는 것도 괜찮다.

#### ⑬ 빈 집은 아니나 집에 아무도 없는 경우

이웃집에 물어보아서 표본가구 및 응답자의 특성을 대략적이라도 파악을 해 둔다. 그리고 명함에 조사 내용과 해당 가구에서 설문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기록을 한 후 그 명함을 문 안쪽 등에 놓고 온다. 이 때 조사협조공문과 본 연구소 안내책자, 서베이리서치센터 연락처 등을 함께 놓고 와도 좋다. 그러면 다음 번 방문에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재방문 시에도 표본가구에 아무도 없을 경우 시간을 체크한 후 방문 요일과 시간을 달리하여 접촉을 시도해 볼 필요성이 있다. 평일에 직접 만나려면 오후 7시 정도에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⑭ 응답 거부, 접촉 불가 등의 경우 스스로 점검해보아야 하는 사항

- ✓ 응답자가 없을 경우 시간 및 요일 등을 달리해서 계속해서 방문해 보았는가?
- ✓ 응답자가 없거나 응답을 거부한 가구에 이 연구의 소개책자 및 조사원이 다녀갔음을 알리는 기록 등을 남기고 왔는가?
- ✓ 응답자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가구의 경우, 응답자가 언제 들어오는지를 이웃집 등에 물어보았는가?
- ✓ 외부인 접근이 차단되는 건물의 경우 접근 방법에 대해 의논했는가?

#### ※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한 주소에 찾아갔는데,

- 1) 만 18세 이상의 가구원이 없거나
- 2) 극심한 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해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
- 3) 그 가구에 사는 사람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 등의 사유로 실제로 조사가 어려울 때 지체 없이 연구원보다 본 연구소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한다. 서베이리서치센터에서 이 가구가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경우 조사원은 《조사진행기록표》에 이 가구의 변화와 함께 자세한 내역을 반드시 기록해두어야 한다.

### (3) 응답자 선정

방문한 가구에서 가구원과의 접촉이 일어 난 후 조사원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가구원 중에서 생일이 가장 빠른 응답자 한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다. 응답자 선정은 다음과 같은 방식을 이용한다.

첫째, 표본가구를 방문해서 그 주소에 현재 살고 있는 만 18세 이상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연장자 순서대로 가구원 리스트에 기록한다. 모든 가구원들의 이름을 빠짐없이 얻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니셜이라도 얻어내도록 한다.

둘째, 이름을 얻은 후에는 각 가구원의 연령과 생일을 물어 본다. 연령을 가르쳐주지 않을 경우라도 생일은 반드시 알아내야만 한다. 생일은 양력이든 음력이든 관계없이 실제로 본인이 사용하는 생일을 기록한다.

셋째, 이 중 생일이 가장 빠른 사람을 최종 응답자로 선정한다.<sup>2)</sup> (또 다시 명심하자. **응답자 대체 절대 불가!!!**)

〈표3〉 표본 가구의 만18세 이상 가구원 리스트 예시

표본 가구의 만 18세 이상 가구원 리스트

표본 가구 주소: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719 푸른마을아파트 108-1101	가구 번호
		0 2

표본 가구에서 다음 표를 작성하고 조사대상자에 ○ 표 하십시오.

가구원 번 호	이 름	가구주와의 관계	생 일 (양력/음력 상관없음)	가구원 번 호	이 름	가구주와의 관계	생 일 (양력/음력 상관없음)
1	홍길동	본인	5 월 17 일	4	홍철우	아들	9 월 8 일
2	최영희	처	9 월 19 일	5	홍연정	딸	6 월 7 일
3	홍철수	아들	4 월 5 일	6	홍연우	딸	8 월 30 일

가구원 리스트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아래와 같은 사람은 리스트에서 제외되

어야, 즉 조사 대상자가 안 된다는 점이다.

✓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혹은 어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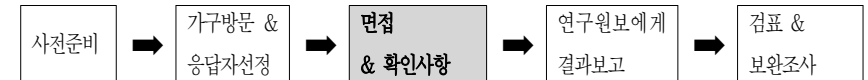
✓ 한국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

✓ 학업, 취업, 군복무 등으로 상당 기간 출타해 있는 사람

✓ 잠시 방문 중인 자녀나 손님

### 3) 면접 방법

세 번째 단계로서 면접 및 면접 후 확인 사항이다.



응답자가 확인되면 즉시 면접을 시작하도록 한다. 응답자가 응답을 거부하면 적절히 설득하고, 부재중인 경우 만날 수 있는 시간대를 확인하여 재방문 약속을 해서 면접을 성사시키도록 한다. 면접의 구체적인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면접 분위기 조성

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것은 면접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면접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인데 조사원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념해야 한다.

##### ① 응답자 외 가구원 통제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는 소득, 종교, 정치적 견해 등 민감한 성격의 질문을 많이 다루므로 다른 사람의 방해로 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에서 면접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조사원은 응답자에게 그들의 비밀을 위해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 면접이 진행되어야 함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다른 조사원도 있어서는 안 된다.

2) 제 1·2·3차 조사에서는 표집 된 가구원 중 태어난 월일이 가장 빠른 가구원을, 제4·5차 조사에서는 표집 된 가구원 중 태어난 월일이 가장 늦은 가구원을, 제6·7차에서는 다시 빠른 가구원을 최종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응답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함께 있을 경우의 대처 요령은 다음과 같다.

- ✓ 배우자가 면접 내용에 관심을 보일 경우, 자신이 가져간 여분의 설문지를 배우자에게 전달하여 조금 떨어진 곳에서 스스로 살펴보거나 기입하도록 한 후 이 설문지는 나중에 폐기함으로써 조사 자료에 섞이지 않도록 한다.
- ✓ 어린아이들과 함께 있을 경우, 응답자가 아닌 다른 가족에게 돌보아달라는 양해를 구하거나 혹은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갖고 놀게 하도록 부탁한다.
- ✓ 이런 것들이 어려울 경우에는 어떤 응답이 옆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는지 체크를 하도록 한다.
- ✓ 간혹 조사원 두 명이 동시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실제 면접은 조사원 한 명이 진행하고 다른 한 명은 다른 곳에 위치해 있도록 해야 한다.

## ② 친근하고도 전문적인 분위기 조성

조사원은 응답자와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전문적인 분위기 사이에서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응답자는 조사원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할 때 더 협조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면접 오류를 줄이는데 매우 중요하다. 응답자가 조사원을 친구로 여기게 되면 그 응답은 전문적인 협조 분위기를 유지할 때와 사뭇 다를 것이다.

## (2) 설문 진행

### ① 순서대로 설문하기

설문은 반드시 설문지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진행해야 한다.

### ② 설문지 내용 그대로 읽어주기

질문은 쓰여진 그대로 읽어주어야 한다. 모든 질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검증 절차를 거쳐서 구성된 것이므로 질문을 읽어줄 때 조사원이 어떠한 변화도 주어서는 안 된다. 특히 조사원 임의로 질문의 내용이나 어휘 등을 변경하는 것을 금한다.

### ③ 조사원이 직접 응답 기입하기

반드시 조사원이 기입하는 방식으로 면접을 진행해야 한다. 간혹, 설문지를 놓고 가면 작성해주겠다는 응답자들이 있으나, 최대한 설득을 해서 조사원과 응답자가 일대일 대면 상황에서 면접을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 ④ 응답 범주 읽어 주는 방법

응답 범주의 숫자 가운데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보기(①, ②, ③ 등)는 응답자에게 불러 주고, 괄호가 쳐져 있는 보기((1), (2), (3) 등)는 불러 주지 않는다. 이를 설문유형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폐쇄형 질문**의 경우에는 응답 보기가 동그라미 쳐진 상태로 이미 질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조사원은 응답범주를 명확히 읽어준 후, 해당하는 보기의 번호에 명확하게 체크한다. 만일 응답 내용이 보기 중에 해당하는 것이 없을 경우 그 질문은 다시 프로빙 되어야 한다.

1. 귀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남을 도우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신만을 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___ ① 남을 도우려고 한다	___ (3) 경우에 따라 다르다	
___ ② 자신만을 위한다	___ (8) 모르겠다	

**현장 코드 질문**의 경우에는 응답보기가 괄호 쳐진 상태로 주어져 있다. 보기를 읽어주지 않되, 응답자들이 말하는 것을 이미 나열되어 있는 응답범주에 조사원이 체크를 하는 질문 유형이다.

24. 귀하는 얼마나 자주 물공 또는 예배(미사) 드리러 가십니까?		<input type="checkbox"/>
___ (01) 일주일에 여러 번	___ (06) 일년에 한 번	
___ (02) 일주일에 한 번	___ (07) 일년에 한 번 미만	
___ (03) 한달에 두세 번	___ (08) 전혀 가지 않는다	
___ (04) 한달에 한 번	___ (88) 모르겠다	
___ (05) 일년에 몇 번		

**개방형 질문**의 경우에는 응답범주를 한정하지 않으므로 응답 보기가 제시되지 않는다. 이런 질문은 폐쇄형 질문보다는 많지 않다. 조사원은 응답자가 말하는 내용을 의역하거나

요약함이 없이 있는 그대로 기록해야만 한다. 응답자의 응답내용 기록은 명확하고 자세할수록 좋다.

45. 귀하는 어떤 산업에서 어떤 종류의 일을 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가장 최근에 했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45.1 산업 및 직종(직장명): _____
45.2 직위: _____
45.3 업무내용: _____

### ⑤ 개방형 설문 응답 작성 지침: 예) 직업 관련 설문

위의 '응답범주 읽어주는 방법'에서도 언급했듯이, 개방형 설문이란 응답범주가 제시되지 않고 응답자가 자신의 말로 응답을 하게 되는 설문을 말한다. 이런 설문의 경우 조사원은 응답자가 말하는 내용을 의역하거나 요약함이 없이 있는 그대로, 또한 명확하고 자세하게 기록해야만 한다.

개방형 설문의 대표적인 예로는 응답자와 배우자의 직업 관련 문항이다 (위의 '응답범주 읽어주는 방법' 항목의 박스 참고). 직업관련 설문은 일하는 기관(직장)명, 직위, 구체적으로 하는 업무 내용의 세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렇게 나눈 이유는 응답자가 하는 일에 대해 최대한 많은,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함이다.

직업관련 설문은 전체 설문 중에서 오류가 가장 많이 생기는 문항이고, 그러기에 면접 종료 후에도 보충 전화조사를 가장 많이 하게 되는 문항이다. 오류가 많다는 것은 조사원이 기입한 정보가 충분치 않아서 응답자와 배우자의 직업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말이다. 조사원은 다른 모든 설문에서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특히 직업 관련한 설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최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어내도록 노력하고, 응답자가 말하는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설문지 여백에 기록하도록 한다. 아울러서 면접 도중에 산업 및 직업 분류코드를 찾아내기 위해 시간을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코드 박스에는 조사원이 직접 기입하지 않아도 된다.

## 직업과 산업에 대한 설문 시 주의 사항

응답자의 정확한 직업과 산업을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응답자의 직업은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많은 사람은 직장에서 하루에 8시간, 많게는 12시간이상 깨지도 보낸다. 그러므로 직업은 그들이 어디에 사느냐, 그들의 미래를 어떻게 계획하느냐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상생활 스타일, 세계관, 건강상태, 경제적 지위까지도 결정하곤 한다.

어떠한 경우에는, 집배원 혹은 바텐더라는 말만 들어도 그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쉽게 떠올릴 수 있다. 그런데, 일반화된 직업 타이틀로는 응답자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적절한 직업 코드를 찾는데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다. 최악의 경우 응답자가 말한 것을 조사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잘못된 코드를 부여하는 경우까지도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무직 이라고만 응답할 경우에 이 사무직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부터 데이터 입력, 구매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각각은 고유한 코드를 가지고 있다. 이는 산업 분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나는 가구 사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고 할 경우 조사원은 응답자가 사업의 어떤 측면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가구 제조 공장에 있는지, 수리를 하는지 혹은 가구를 파는 일을 하는지를 구별해야 한다. 그러므로 조사원은 면접을 실시하기 전에 직업분류표와 산업분류표를 여러 차례 꼼꼼히 읽어봄으로써 산업과 직업의 종류와 각각의 차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⑥ 비해당 (not applicable) 응답 범주

설문 가운데는 어떤 응답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질문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미혼자에게 배우자에 대해서 묻는 경우에는 “비해당”으로 체크한 후 다음 질문으로 넘어간다. 조사원은 이것을 세심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 ⑦ '기타' 응답 작성 지침

어떤 설문의 응답 범주에는 '기타'라는 항목이 있고, 이런 경우는 그 내용을 질문하고, 조사원이 응답을 직접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조사원은 응답 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묻고 자세한 응답을 적어야 한다.

### ⑧ 프로빙(probing) 및 보기카드 사용하기

프로빙은 면접 도중 응답자가 설문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설문의 의미를 더 설명해서

응답을 얻어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이때 설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설명을 프로빙이라고 한다.

한국종합사회조사는 모든 설문과 보기를 불러주고 응답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보기 항목이 많은 문항이나 조사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기카드를 이용하도록 한다. 보기카드를 응답자에게 제시한 후 문항번호에 맞춰 질문하면서 보기 중에서 응답을 고르도록 한다.

따라서 프로빙과 보기카드는 아래처럼 설문 문항 옆에 박스로 **프로빙** / **보기카드** 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49. 귀하는 '자본주의'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다음 중 두 가지만 골라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b>보기 카드</b>	① 물질적 풍요    ② 부정부패    ③ 경쟁    ④ 효율성    ⑤ 빈부격차    ⑥ 풍부한 기회    ⑦ 착취
<b>프로빙</b>	1)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 _____ (88) 모르겠다
	2) 두 번째로 떠오르는 것: _____ (88) 모르겠다

프로빙은 “2009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집”에 포함되어 있고, 보기카드는 “2009 한국종합사회조사 응답범주 보기카드”를 확인하면 된다.

프로빙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 프로빙 (Probing)

프로빙이란 조사원이 응답자의 답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오류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더 완벽하고 명확한 응답을 얻어내기 위한 캐묻는 것을 말한다.

### 프로빙의 유형

#### ■ 잠시 멈추기

때로는 침묵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단순히 응답을 체크하는 것을 멈추고 뭔가 기대하는 듯한 눈빛으로 응답자를 쳐다본다.

#### ■ 질문 다시 읽어주기

질문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을 강조해서 다시 한 번 읽어준다. 폐쇄형 질문의 경우, 응답자가 응답 범주에 없는 내용을 대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조사원은 모든 응답범주들을 똑같이 강조하면서 전체 질문을 다시금 읽어준다.

## 프로빙 (Probing) 계속

### ■ 좀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기

“좀 더 말씀해 주십시오”, “그 외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등으로 되묻는다.

### ■ 일반성 강조하기

“일반적으로 볼 때 귀하는 ---” 이라고 말하면서 질문을 다시 반복한다.

### ■ 주관성 강조하기

“귀하의 의견에는--” 혹은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가장 근접한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질문을 다시 반복한다.

### ■ 질문의 초점을 정확히 맞추기

간혹 응답자의 개인적 의견이 너무 강해서 설문에서 주어진 응답 범주 가운데 응답하는 것을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 이 경우 응답자의 응답내용을 자세히 기록해둔다.

## (3) 설문 시 유의사항

설문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① 호칭 사용

응답자나 다른 가구 구성원과 대화를 할 때에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농촌에 사는 4-50대 여성에게는 아주머니라는 호칭이 적절할 것이나, 도시의 30대 주부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어머니’도 많이 사용하는 호칭 중의 하나이나 때로는 이것이 거부감을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② 정확하게 읽어주기

응답자가 질문을 정확하게 듣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조사원은 첫 번째 면접을 시도하기에 앞서 큰소리로 여러 번 질문을 읽어보는 연습을 해야 한다. 질문들은



최대한 천천히 읽어주고 대화하는 톤을 유지해야 한다. 조사원이 급하게 질문을 하면 응답자도 이 속도에 맞게 답하게 되는데 이것은 응답자로 하여금 면접의 질보다는 속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 반대로 조사원이 모든 질문을 천천히 그리고 세심하게 읽으면 응답자도 정확하게 응답하려고 신경을 쓸 것이다. 그러므로 조사원은 질문을 읽을 때 평상시 대화에서 보다 더 천천히 읽으면서 강조해야 할 부분만 강조하도록 해야 한다.

### ③ 빠짐없이 유효 응답 받아 내기

모든 항목들에 빠짐없이 유효한 응답(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응답)을 얻어내도록 최선을 다한다. 앞의 질문이나 일반 대화 과정에서 이미 응답했더라도 모든 질문은 응답자에게 반드시 읽어주어야 한다. 이를테면, "이 질문은 앞에서 이미 응답하셨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응답을 얻어낼 필요가 있다. 또한, 간혹 응답자가 응답 범주에 없는 대답을 할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주어진 응답 범주에서 하나를 고른다면 어느 응답에 가장 가까울까요?'라고 하면서 최대한 유효응답을 받아내도록 한다. 그러나 응답자가 질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끝까지 유효응답 주기를 회피할 경우, '모르겠다'에 체크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 간다.

### ④ 깨끗하게 기록하기

응답내용은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깨끗하고 명확하게 기록해야만 한다. 조사가 완료된 설문지가 불명확하거나 읽기 어려운 경우, 자료를 수집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질문의 맨 오른쪽 끝에 위치한 박스는 전산처리를 위한 것이므로 여기에는 체크 또는 기록하지 않는다.**

### (4) 면접 종료 후 조사원의 임무

이 조사를 1회의 방문으로 완료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일 수가 있다. 면접결과와 관련하여 발생가능한 경우를 나누어 조사원이 행해야 할 절차를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크게 **설문조사를 완료한 경우와 미완료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① 설문 완료시

설문을 완료했을 경우는 다음의 절차에 따르도록 한다. 먼저 누락내용 확인 후 누락내용 재질문, 응답자 정보 입수, 인센티브 제공, 면접 직후 《조사원 면접 상황 기록》과 《조사원 인적 사항》작성, 《표본가구 방문 기록》작성, 연구원보에게 결과를 보고한다. 그러면 설문조사를 성공적으로 모두 마친 후 조사원이 마지막으로 마무리해야 할 중요한 임무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 ② 누락내용 확인 후 누락내용 재질문

상당한 시간에 걸쳐 마지막 질문까지 답변을 얻어낸 후, 조사원은 중간에 설문진행 상편의나 응답자의 거부 혹은 주저함으로 인하여 나중에 질문하기로 한 것이 없는지 다시한번 확인해보아야 한다. 만약 누락한 질문이 있으면, 본인이 다시 응답자를 만나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누락질문을 잘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조사원 면접 상황 기록》과 《조사원 인적 사항》기록하기

설문지 맨 뒷 편에 《조사원 면접 상황 기록》과 《조사원 인적 사항》있는 페이지가 있다. 조사원은 면접을 최종 완료한 후, 반드시 이 두 항목을 작성해야 한다. 이 기록은 조사를 누가, 언제, 어떻게 진행하였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조사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로 집적되고 활용된다. 이 기록에 대한 작성은 설문지 작성만큼이나 정확하고 있는 그대로 작성해야 하고,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한다. 면접현장에서 작성할 수도 있고 면접현장을 떠난 직후(응답자의 아파트나 집을 나온 직후)에 작성하는 것이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다.

### 《조사원 면접 상황 기록》

※ 아래 질문은 조사원이 면접 직후 응답자가 없는 상황에서 지체하지 말고 기록하여야 합니다.

118. 면접일시  
 월 일 요일  
 오전 오후 시 분부터 시 분까지

119. 설문지 기입시  
 (1) 조사원이 전부 기입  
 (2) 응답자가 전부 기입  
 (3) 응답자가 일부 기입

119.1 (응답자 일부 기입시) 응답자가 기입한 문항번호  
 번부터 번까지 번부터 번까지

… 중간 생략 …

<조사원 인적사항>

127. 조사원 ID번호:

128. 성 별: (1) 남 (2) 여

129. 나 아: 만 세

130. 소 속: 대학교 학과 학년

성 명: 전화번호:

### ④ 응답자 정보 입수

면접을 완료한 후 응답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반드시 얻어내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응답자로 하여금 직접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도록 해서 자신이 서명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이름과 전화번호를 얻어내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응답자가 자신의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밝히는 것을 꺼리는 경우, 전화번호만이라도 얻어내려고 노력해야 된다. 응답자의 전화번호는 사후에 확인조사 및 보충조사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이므로 응답자의 전화번호를 얻어내는 것은 조사원이 해야 할 중요한 임무임을 명심하도록 한다.

그리고 응답자 주소를 표집틀을 보고 반드시 써주어야 한다.

※ 이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알려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 조사는 매우 복잡해서 저희가 잘못 여쭈어 보거나 빠뜨린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다시 여쭈어 볼 수 있도록 귀하의 성함과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알려지지 않을 것이니 이 점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응답자 성명: 전화번호:

응답자 주소:

### ⑤ 조사구 및 가구 번호 기입

설문을 완료한 후에는 표지에 조사구 번호와 가구 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그림 2). 이것은 설문지에 부여하는 고유번호이므로 완료된 설문을 관리하는데 필수적인 항목이다.

조사구 번호와 가구 번호는 표본틀 리스트에서 찾아 기입한다. 조사구 번호는 아래 그림 1 상단에 적혀 있으며, 가구 번호는 아래 그림 1 가구주소에서 동그라미 옆에 적힌 번호를 기입한다.

이때 가구 주소 바로 옆에 적힌 일련번호를 적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 ⑥ 표본지역별 면접진행 기록표

표본지역별 면접진행 기록표는 별도의 소책자로 인쇄되어 조사원에게 지급되는데, 이 기록표에는 《표본가구 방문 기록》이라는 서식이 포함되어 있다.

이 서식은 조사원이 조사를 완결할 때까지 표본 가구를 방문할 때마다 매번 작성해야 하는 방문기록표이다. 이 기록표는 조사원이 언제, 몇 시에 가구를 방문했으며, 조사를 완료했는지의 여부, 조사를 완료할 수 없었던 이유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사원은 이 기록표도 기록 양식에 맞게 반드시 작성해야만 한다 (아래 예시 참조).

표본 가구 방문기록(예시)

횟수	방문 일시	완료여부	미완료 이유	
1	7월 1일 금요일 5시 (오전/오후)	미완	방문을 했으나, 아무도 없었음	0 2
2	7월 3일 일요일 7시 (오전/오후)	미완	응답자 또는 가구원이 재방문을 요청함	0 4
3	7월 4일 월요일 11시 (오전/오후)	미완	응답자가 1차 면접거부	0 8
4	7월 7일 목요일 7시 (오전/오후)	완료	완료	

## (5) 설문 미완료 시

### ① 재방문 약속

응답자나 가구원과 다음번 면접 일정을 약속한다.

《표본가구 방문 기록》 작성은 방문회수에 따라 내용 작성한다. 재방문이나 면접약속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숙지하여 방문방법을 수정해보도록 한다.

### ② 그 외, 응답 거부, 접촉 불가 등의 경우 스스로 점검해보아야 하는 사항

- ✓ 응답자가 없을 경우 시간 및 요일 등을 달리해서 계속해서 방문해 보았는가?
- ✓ 응답자가 없거나 응답을 거부한 가구에 이 연구의 소개책자 및 조사원이 다녀갔음을 알리는 기록 등을 남기고 왔는가?
- ✓ 응답자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가구의 경우, 응답자가 언제 들어오는지를 이웃집 등에 물어보았는가?
- ✓ 외부인 접근이 차단되는 건물의 경우 접근 방법에 대해 의논했는가?

### ③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앞서 얘기했지만,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새롭게 발견되었을 경우는 연구원보에게 연락하고 연구원보는 서베이리서치센터에 연락하여 다음 절차에 대하여 상의하도록 한다.

선정한 주소에 찾아갔는데 1) 만 18세 이상의 가구원이 없거나 2) 극심한 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해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 혹은 3) 그 가구에 사는 사람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 등의 사유로 실제로 조사가 어려울 때에는 지체 없이 **연구원보나 본 연구소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한다.** 서베이리서치센터에서 이 가구가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경우 조사원은 《조사진행기록표》에 이 가구의 번호와 함께 자세한 내역을 반드시 기록해두어야 한다.

조사불가 판정은 본인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원보에게 우선 상황을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SRC 연구소에서 불가여부를 판단한다.

## ④ 조사불가로 판정된 경우

해당가구에 대하여 《조사진행기록표-미완료 설문에 대한 조사원 기록사항》을 작성하도록 한다. 《미완료 설문에 대한 조사원 기록사항》은 아래에 예시되어 있는데, 조사원은 설문이 미완료로 종료된 경우 이 기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 《미완료 설문에 대한 조사원 기록사항》

※ 다음은 설문을 완료하지 못한 응답대상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응답대상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악하고, 응답대상자가 없는 상황에서 즉시, 그리고 최대한 상세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을 완료한 경우, 설문완료에 체크하시고, 응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_\_\_\_\_ 설문 완료

#### 1. 설문을 완료할 수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 ___ ① 응답자를 만날 수 없었음       | (문항 1.1로 가시오)   | ___ ⑥ 외국인이 살고 있음       |
| ___ ② 응답자의 면접거부           | } (문항 1.2로 가시오) | ___ ⑦ 빈집이었음(거주하는 사람 無) |
| ___ ③ 응답자 외 가구원의 면접거부     |                 | ___ ⑧ 주거지가 아님(상가 등)    |
| ___ ④ 질병, 장애 등으로 면접불가     |                 | ___ (77) 기타 (무엇: )     |
| ___ ⑤ 18세 이상의 성인이 거주하지 않음 |                 |                        |

#### (응답대상자를 만날 수 없었다면)

##### 1.1 응답대상가구에 대한 정보를 누구로부터 얻었습니까?

- |          |                  |                    |
|----------|------------------|--------------------|
| ___ ① 가족 | ___ ③ 대상가구 인근 상점 | ___ ⑤ 동사무소 등의 공공기관 |
| ___ ② 이웃 | ___ ④ 공인중개사사무소   | ___ ⑥ 기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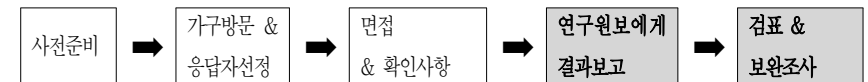
#### (면접거부로 인해 설문을 완료할 수 없었다면)

##### 1.2 면접거부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면접거부 이유: \_\_\_\_\_

... 이하 생략 ...

## 4) 결과보고 및 검표, 보완조사



마지막 단계로 조사원은 연구원보에게 결과 보고를 하며, 검표와 보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연구원보에게 즉시 결과보고를 하고 완료된 설문을 연구원보에게 제출한다. 조사원은 연구원보와 함께 간단히 검표를 한 후 응답이 빠진 문항이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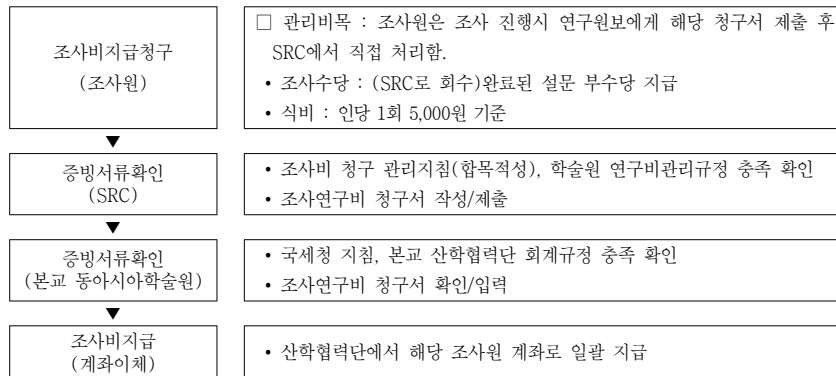
지를 확인한다. 빠진 문항이 있는 경우 전화 또는 재방문을 통해 즉시 보완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설문지 마지막 페이지에 면접진행기록과 조사원 인적 사항까지 모두 기록해야 한다.

조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재방문을 시도해서 조사를 완료한다. 만약 조사불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먼저 연구원보에게 보고하고, 조사불가 여부 결정은 연구원보가 SRC와 상의한 후 최종 결정한다.

만일 표본대체 등의 의심이 가는 사례가 발견되면, SRC와 상의한 후 대체된 설문지는 모두 폐기하고 재조사를 수행해야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사원은 아래 지침에 따라 조사경비를 청구해야 한다. 조사경비 청구는 조사비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조사경비 집행절차와 청구기준은 아래 <표4> 와 같다.

<표4> 조사비 집행 절차



※ 시내교통비는 추후 일괄 지급 예정.

조사경비 청구서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성명, 주민번호, 학교명, 주소(주민등록상), 우편번호, 지급은행, 계좌번호는 모두 기입한다.

2) 날짜, 금액, 내역, 영수증 첨부 여부는 조사지역을 방문에 지출한 항목을 순차적으로 기입한다.

3) 원칙적으로 조사경비 청구서에 기록한 항목들은 모두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한다. 단, 영수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고”란에 영수증이 없다는 점과 간략한 사유를 기재한다. 영수증이 없더라도 지출 항목에서 빠뜨리지 않아야만 지급가능하다.

### 3. 2009 KGSS 설문 구성

#### 1) 설문 내용 요약

2009 KGSS는 크게 반복핵심 조사, ISSP 주제모듈 조사, 특별주제모듈 조사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구성되는데, 각 조사의 성격과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009 KGSS 설문구성

조사내용	설문항
반복핵심조사	(정치) 국가자긍심, 정치성향, 정치만족도, 정치전망, 지지정당, 선호정당, 정당 평가, 국정운영 평가, 각종 사회정책에 대한 평가, 북한민족통일 문제 등
	(경제) 경제만족도, 경제전망, 자본주의의 이미지, 대기업의 이미지 평가, 대기업에 대한 정책 평가, 노동조합에 대한 평가 등
	(사회) 사회적 신뢰, 사회집단에 대한 신뢰,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노력에 대한 평가, 신문구독 및 TV시청 등
	(배경변수) 응답자배우자가구주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응답자 부모의 교육수준, 가족구성과 가구형태, 가구원수, 동가비동거 가족수, 가족이 아닌 동거인수, 가구원 중 취업자 수, 종교, 가계소득, 계층귀속, 취업상태, 고용지위, 직업, 산업 등
ISSP모듈 조사 사회불평등 IV	○ 불평등의 실제: 인생 성공 요인, 정부/조세/건강/교육과 불평등, 집단간 갈등 정도, 영역별 평등 정도, 귀족지위와 성취지위의 중요성 등 ○ 사회 계층의 현실과 인식: 사회 유형(현재와 지향), 주관적 계층 의식(현재와 과거), 소속 계급, 주관적 사회경제 성공도, 본인 성취 태도, 교육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등 ○ 소득 및 직업 관련 불평등: 소득 결정 사항, 동일노동시 임금 영향 요인, 직업별 실제 소득액과 기대되는 소득액, 본인 직업 지위, 부친-모친-본인 직업, 사회 이동, 소득 정당성 등
특별 주제모듈 조사 형평과 공정성 V	○ 사회경제적 기회의 불평등 지각, 경력몰입,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불공정 대처 행태, 보수 결정요인 평가, 직업평가

#### 2) 설문 문항 설명 및 문항별 주의 사항

마지막으로, 설문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설문 문항별로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조사는 아래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고 숙지한 후 설문 진행 및 응답 기입에 오류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 (1) 반복핵심 설문

반복핵심 설문이란 앞서서도 설명했듯이 KGSS조사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설문으로, 한국사회의 다양한 측면들의 변화상을 연도별로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된다. 따라서 조사는 반복핵심설문의 각 문항에 대해서 유효한 하나의 응답을 얻어 내는데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물론 다른 설문문항에서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주의해야 할 사항은, 반복핵심설문에는 혼인상태, 교육수준, 직업, 소득 등, 응답자가 답하기 곤란해 할 질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내용을 매우 상세하게, 그리고 다른 가족원에 대해서도 묻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는 이러한 점들을 잘 이해하여, 응답자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빠짐없이 응답을 얻어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반복핵심 설문 문항별 주의 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문항 번호	주의 사항
3	<b>사회 각 기관의 지도자에 대한 신뢰도:</b> 12개의 하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질문하고, 응답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2009 KGSS 자료집」에 있는 《프로빙 지침》을 참고하여 그 뜻을 설명해 주어야 함 (《프로빙 지침》 해당 문항: 교육계/중앙정부부처/지방자치 정부/국회/학계/청와대/시민운동단체)
10 10.1 11	<b>정당 이름 응답 보기에서 (66) 기타 (어느 정당: ):</b> 이 응답범주는 응답자가 직접 말하는 개방형 범주임. 응답자의 말을 세심히 듣고, 정확한 정당명을 기입하되, 응답자가 정당명을 정확하게 모를 시에는 정당대표, 정당특성 등을 자세히 물어 보고, 응답 내용을 설문지 여백에 자세히 기록하도록 함
11	<b>앞으로 정권을 잡을 능력이 있는 정당:</b>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집권할 능력을 말함. 차기 대선에서는 현재와 다른 정당 구도가 형성될 수 있을 테지만, 그래도 현재를 중심으로 응답 범주에 나와 있는 정당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종용해야 함
14	<b>한국의 정치 상황:</b> 국내의 정치 상황을 의미함
17	각각의 정치적/사회적 행동에 대하여 지난 1년이나 그보다 오래된 과거의 경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의향도 묻고 있음에 유의하자. 진정서, 시위, 집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응답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 프로빙을 참고하여 차근차근 설명하고 빠짐없이 응답을 얻어낼 것
22	<b>신문:</b> 전통적인 활자 신문이 아닌 신문 형태 (온라인 신문, 등)를 모두 포함하는 것임/ 응답자가 '인터넷으로 보는 것도 포함되나' 라고 물으면 그렇다고 잘 대답해줘야 함
23	TV: 인터넷, DMB 등으로 보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임.
33	<p>각각의 문항이 서로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선 조금 달라 보일 수 있는 두 개의 성격특성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둘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답해야 하는 지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질문임. 조사는 둘 중 하나만을 가지고 답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답해야 함을 응답자에게 주지시킬 것. 참고로 각 성격 특성들의 영어 원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외향적이다(extraverted), 적극적이다(enthusiastic)</li> <li>2. 비판적이다(critical), 논쟁을 좋아한다(quarrelsome)</li> <li>3. 신뢰할 수 있다(dependable), 자기 절제를 잘한다(self-disciplined)</li> <li>4. 근심 걱정이 많다(anxious), 쉽게 흥분한다(easily upset)</li> <li>5.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이다(open to new experiences), 복잡다단하다(complex)</li> <li>6. 내성적이다(reserved), 조용하다(quiet)</li> <li>7. 동정심이 많다(sympathetic), 다정다감하다(warm)</li> <li>8. 정리정돈을 잘 못한다(disorganized), 덤벙댄다(careless)</li> <li>9. 차분하다(calm), 감정의 기복이 적다(emotionally stable)</li> <li>10. 변화를 싫어한다(conventional), 창의적이지 못하다(uncreative)</li> </ol>
34~36	<b>가족관련 설문:</b> 「표본지역별 면접진행 기록표」 안에 들어 있는 〈표본 가구의 만18세 이상 가구원 리스트〉를 참조하면서 <b>응답내용에 일관성이 있도록 주의함; 34+35+36 응답의 합계는 37번 가구표의 총 가구원 수와 일치해야 함</b>
	<b>동거 가족:</b> 현재 가구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만 해당되고 응답자 자신도 동거 가족 수에 포함됨. 동거 가족에 포함되는 사람에 대한 다음의 각 주의사항을 숙지하도록 함
34	<p>a) 평소 함께 사는 데 짧은 시간동안 (4~5개월 이내) 출장, 연수, 입원 등의 이유로 출타 중인 가족도 포함됨</p> <p>b) 6개월 이상 장기간 출타 중인 가족 (군복무중인 자녀(출퇴근하는 군인인 경우는 제외), 취학, 취업 등의 이유로 타지역에서 살고 있는 가족, 병원 혹은 요양원 등에 기거 중인 가족, 등)은 포함되지 않음</p> <p>c) 평소 함께 살지 않는데 잠시 집에 와 있는 가족(예: 타지역에서 학교 다니는 자녀의 방학 중 방문, 휴가 나온 자녀, 잠시 방문 중인 친척, 등)은 포함되지 않음</p> <p>d) 주말 부부의 경우처럼 평소에는 따로 살고 주말에만 와 있는 가족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p> <p>e) 함께 살고 있는 삼촌(시동생), 고모(시누이), 이모(처형, 처제), 사돈, 조카, 사촌 등의 경우는 응답자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동거 가족에 포함시키고, '가족'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면 36번 '가족 외 동거자'에 포함시키도록 함</p>
35	<b>별거 가족:</b> 여기서 '별거'란 혼인상태로서의 별거 의미가 아니라 평소에는 함께 사는 가족이지만 취학, 입대, 취업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6개월 이상) 따로 사는 가족을 말함

	<p>a) 결혼해서 분가한 자녀 및 그 자녀의 자녀, 즉 손자/손녀는 별거 가족에 해당되지 않음. 그러므로 결혼해서 분가한 자녀 정보는 37번 가구표에도 기입해서는 안 됨</p> <p>b) 역으로 응답자 자신이 결혼 후 분가해서 살고 있는 경우에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 등의 원 가족은 별거 가족에 포함시키지 않음. 이 경우도 37번 가구표에 기입해서는 안 됨</p> <p>c) 응답자가 결혼한 것은 아니나 집에서 독립해서 따로 나와 산 지 꽤 오래 된 경우에 원가족을 별거 가족에 포함시키지는 응답자의 주관에 달림</p> <p>d) 응답자가 이혼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별거하는 자녀가 포함되는지는 응답자의 주관에 달리고, 이혼이 아닌 '별거'의 경우에는 배우자도 별거 가족에 포함됨</p> <p>e) 자녀가 응답자이고 부모가 이혼한 상태여서 함께 살지 않을 때, 그 부모가 별거 가족에 포함되는지는 응답자의 주관에 달림. 부모가 이혼이 아닌 '별거'의 경우에는 별거 가족에 포함됨</p>
36	<p><b>가족 외 동거자:</b> 여기서 '동거'란 미혼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의미로의 '동거'가 아니라 그런 경우를 포함해서 친구, 직장 동료, 하숙생, 가사 도우미, 간병인, 등, 가족이 아닌 사람이 표본가구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경우를 말함; 친척(삼촌(시동생), 고모(시누이), 이모(처형, 처제), 사돈, 조카, 사촌, 등)의 경우에는 응답자가 '가족'으로 인식할 수 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응답자의 주관에 따라 해당 항목에 맞게 포함시키도록 함</p> <p><b>가구표:</b> 앞의 34, 35, 36번 문항에 포함된 사람들이 가구표에 모두 포함되어야 하고, 각 사람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응답을 기입해야 함. 응답자가 귀찮아하거나 대답을 회피하더라도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응답자를 설득하면서 응답을 모두 받아내도록 노력해야 함; 이 질문들의 응답 범주는 '4) 혼인상태' 설문을 제외하고는 읽어 주는 보기가 아님을 명심하도록 함</p> <p><b>1) 응답자와의 관계:</b></p> <p>a) 가구원 번호 1번은 응답자임. 1번에 다른 가구원을 적지 않도록 주의함</p> <p>b) 응답자와의 '관계'에는 각 가구원이 '응답자'와 어떤 관계인지를 글로 쓰는 것임. 예를 들어 응답자가 기혼 여성이고, 시동생이 함께 살고 있다면 그 시동생은 '삼촌'이 아니라 '남편'의 형' 혹은 '남편의 동생' 등으로, 부모일 경우에는 '자신의 부모'인지 '배우자의 부모'인지 등으로 정확하게 써 줘야 함</p> <p>c) 자녀가 한 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자녀가 몇 째 자녀인지를 물어 보고 해당되는 보기를 적어야 함</p> <p>d) 보기의 "(26) 돌봐주는 사람"은 응답자가 돌봐 주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원 중에 누군가를 돌봐 주기 위해서 현재 그 가구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함</p> <p>e) (77) 기타 (누구: )는 다른 응답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그 외의 사람을 기입하는 난으로 응답자가 말하는 것을 조사가원이 정확하게 기입하도록 함</p> <p><b>3) 나이:</b> 조사 시점 당시 만 나이를 말함; 응답자가 가구원의 나이를 정확히 모를 때는 몇 년생인지, 무슨 띠인지 (띠를 물을 때는 대략의 연령대를 물어야 함) 등을 물어 보던가 해서 무응답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함.</p> <p><b>4) 혼인상태:</b> 응답자가 대답을 꺼릴 수도 있는 질문임. 특히, 별거나 이혼의 경우 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할 때는 응답자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응답을 받아내도록 주의함; 혼인상태 응답 범주는 읽어 주는 보기임.</p> <p><b>5) 동거여부:</b> 여기서 '동거'란 미혼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의미로의 '동거'가 아니라 현재 가구에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말함. 함께 살고 있으면 '동거', 일시적으로 함께 살고 있지 않음</p>

	<p>면 (44번 '별거 가족'에 포함된 사람) '비동거'입; 응답자는 무조건 '동거'에 해당함</p> <p><b>6) 비동거 사유:</b> (04) 응답자 취학 (05) 응답자 취업 보기는 <b>응답자 자신이 취학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집에서 나와서 따로 살고 있는 경우</b>에 해당하며, 그런 경우에는 (01) 취학 (02) 취업으로 체크해서는 안 됨; (01)~(05) 의 응답 범주에 해당 되지 않는 비동거 사유는 (77) 기타 (무엇: )에 자세히 적도록 함</p> <p><b>7) 취업 여부:</b> 현재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취업'에 해당함. 여기에는 임시로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소규모 농사 (농사를 통해 수입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등도 포함됨</p> <p><b>8) 미취업 사유:</b>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서 표에 제시된 응답범주를 참고하여 우선 정확히 글로 기입하고, 확실한 보기 넘버를 기입하도록 함. 강조하건대, 보기 넘버를 기입하는 것보다 정확히 글로 기입하는 것이 더 중요함</p> <p>(01) <b>학령미달</b> 만 7세 이전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미취업사유임</p> <p>(02) <b>재학</b> 초등학교에서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정규 교육 과정에 있는 사람의 미취업사유를 말함 (사설 학원 등은 포함되지 않음)</p> <p>(05) <b>질병</b> 병이 나거나 몸이 안 좋아서 일을 못 하는 경우를 말함</p> <p>(06) <b>심신장애</b> 선천적인 장애라던가, 사고 등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 혹은 정신장애 등으로 인해서 일을 할 능력이 불완전해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p> <p>(09) <b>은퇴</b> 정년이 되어서 은퇴한 것이 아니라 직장의 구조조정, 건강·본인이 그 일을 더 하고 싶지 않아서·다른 일 계획 등의 개인 사정, 혹은 집안 사정, 직장사정·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 두게 된 경우를 말함</p> <p>(10) <b>정년퇴직</b>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이 되어 은퇴한 경우를 말함</p> <p>(11) <b>취업준비</b> 현재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취업 정보 수집, 취업을 위한 시험 준비, 고시 준비, 등)</p> <p>(12) <b>공부중</b> 취업 등을 위한 공부라 아니라 학업을 위한 공부를 말함 (예: 학교 졸업을 위한 검정고시 준비; 학교 입학할 위한 공부 [예: 재수생, 편입생, 유학 준비자, 등])</p>
38	<p><b>가구주:</b> 한 가구의 대표자를 말함. 세대주나 호주가 아니어도, 혹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가구주가 될 수 있음. 가구주가 누구인지는 '응답자'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대답해야 하고, 해당되는 사람을 가구표에 나와 있는 보기에서 골라 적도록 함.</p>
39~43	<p><b>응답자, 배우자, 아버지, 어머니의 교육수준 설문</b></p> <p>a) 간혹 옛날의 학교 시스템 (소학교, 보통학교, 전문학교 등)을 말하는 응답자도 있는데, 이런 경우 조사원이 임의로 응답 보기를 골라서 체크해서는 안 되고 응답자가 말하는 대로 설문지 여백에 자세히 기록해 두면 나중에 연구소에서 검토할 때 수정할 것임</p> <p>b) 졸업/중퇴/재학 중 구분 할 것: 중퇴인 경우나 현재 재학 중인 경우는 반드시 몇 학년 때 중퇴 혹은 재학중인 지를 물어야 함; 이 문항들은 나중에 '교육년수'를 계산할 때 필요하고, 교육년수는 연구자의 분석에 중요한 변수이므로 중퇴/재학학년 문항에 응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할 것</p>
40	<p>고등학교를 졸업한 응답자는 반드시 답해야 하는 문항이다. 따라서 전문대학/대학교/대학원 재학생·중퇴자·졸업자 모두 답하게 할 것</p>

	<p><b>일 관련 문항:</b> 응답자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조사임. 내용이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조사원은 사전에 이 부분의 설문 문항 하나하나를 꼼꼼히 숙지하여 정확한 응답을 빠짐없이 받아내도록 노력해야 함; 때로 응답자의 응답이 보기의 어디에 해당되는지 조사원이 모를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응답 내용을 설문지 여백에 자세히 기입하도록 함</p> <p><b>44. '수입이 있는 일':</b> a) 일의 내용과 형식이 무엇이던 간에 그 일을 통해서 수입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① 그렇다"에 해당함; b) 임대소득자처럼 하는 일이 없이 건물, 가게 등을 임대해 주고 세를 받으면 "② 아니다"에 해당되고 52.19 문항에서 근로소득 외 월평균 소득에 소득 내용을 기입하도록 함. 그러나 사무실을 가지고 빌딩관리 등을 포함하는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영업자로 분류함</p> <p><b>44.1. '고용':</b> 정부 기관, 회사, 학교, 학원, 서비스업체 등, 직장에 취직해서 그 기관으로부터 봉급을 받는 근로자를 말함 (과외선생님, 파출부의 경우에는 '고용'이 아니라 '자영업'에 속하나 만약에 인력단체에 소속되어 그 기관으로부터 봉급을 받는다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분류함)</p> <p><b>44.2, 44.3, 44.5, 4.46, 44.8:</b> 응답자가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2009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집」의 《프로빙 지침》을 참고하여 설명해 줄 것</p> <p><b>44.15, 44.16, 44.18 소득 관련 질문:</b> 소득 관련 질문은 응답자가 응답하기를 상당히 꺼리는 질문임. 그러나 연구를 위해서 소득에 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하므로 응답을 반드시 얻어 내도록 노력해야 함. a) 소득은 '월평균 소득'임을 명심할 것 (간혹 연봉 혹은 1년 소득을 적는 조사원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기입) b) 응답자가 응답을 꺼리면 '선생님께서 직접 써 주시겠어요?' 라고 하면서 응답자가 쓰도록 종용해 봄</p>
44	
	<p><b>산업 및 직종: 직위 및 업무내용 관련 질문:</b> 이 질문은 응답자의 직업을 알아보는 질문임. 사회과학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반드시 정확한 직업 정보를 얻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질문임. <b>조사원은 「2009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집」에 들어 있는 &lt;산업분류표&gt;와 &lt;직업분류표&gt;를 사전에 꼼꼼히 읽고 숙지한 후에 응답자로부터 정확한 응답을 얻어내도록 노력해야 함</b></p> <p>a) 45번 설문에서 설문 방법의 <b>제 1 원칙은 "가능하면 자세히 물어 본다"</b>임</p> <p><b>45.1) 산업/직종:</b> 하는 일의 분야(예: 농업, 임업, 금융업, 교육 서비스업, 부동산산업, 섬유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 판매 소매업, 기타 소매업, 도매업, 숙박업, 등)를 물어 보는 것임. 우선은 '어떤 산업 혹은 직종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 보고, 응답자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분야의 일을 하고 계세요?'라는 식으로 풀어서 물어 볼 것; &lt;산업분류표&gt;를 보면, 산업/직종명이 다양함을 알 수 있음. 응답자가 종사하는 분야를 정확히 받아내야 함. 예) '제조업'이라는 대답으로는 불충분하고, 무엇을 만드는 제조업인지 물어야 함</p> <p><b>45.2) 직위 및 업무내용:</b> 구체적으로 <b>무슨 일을 하는지</b> 물어 보는 것임. '하시는 일에서 어떤 직위를 맡고 계신지, 일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는 식으로 질문 할 것. &lt;직업분류표&gt;를 보면, 직업종류가 상당히 다양함을 알 수 있음. 응답자가 이 중에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한 응답을 받아내야 함. 예) '교사'라는 대답으로는 불충분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학교 구분과, 정식 교사인지, 임시 교사인지, 보조교사인지, 등의 직위 정보가 필요함.</p>
45	

	그 이유는 이런 직위와 업무내용에 따라서 직업코드가 다르게 부여되기 때문임. 몇 몇 예를 더 살펴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시장에서 양품전 운영:</b> 단순히 옷을 가져다가 판매하는가? 아니면 직접 옷을 디자인해서 판매하는가? 이런 내용에 따라서 응답자의 직업이 '상점판매원'인지 '상업 디자이너'인지 달리 구분됨</li> <li>• <b>농사를 짓는다:</b> 어떤 종류의 작물(예: 쌀, 채소, 파수)인가? 출하용인지, 아니면 자급용인가? 이런 내용에 따라서 응답자의 직업이 '출하용 채소 재배자'인지 '파수작물 재배자'인지 '자급 농업 종사자'인지 달리 구분됨</li> <li>• <b>사무직이다:</b> 어떤 종류의 사무인지 구체적으로: 비서인지, 경리를 맡는지, 대금을 수납하는 일인지, 고객상담 일인지, 등 자세히 알아 낼 것. 이런 내용에 따라서 응답자의 직업이 '비서', '회계 사무원', '대금수납 관련 사무원', '고객안내 사무원' 등으로 달리 구분됨</li> <li>• <b>생산직이다:</b> 무엇을 하는 작업인지 구체적으로: 쇠파이프를 용접하는 일인가, 쇠파이프 원료를 가열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일인가, 다 만들어진 제품을 포장하는 일인가, 등; 이런 내용에 따라서 응답자의 직업이 '금속 용해원', '금속가열처리장치 조작원', '수동포장 노동자' 등으로 달리 구분됨</li> <li>• <b>이동통신 회사에서 일한다:</b> 어떤 일인지 구체적으로: 관리자라면 어떤 부서 (연구개발, 인사, 광고, 생산, 등)의 무슨 직급(이사, 부장, 과장, 대리, 등)의 관리자인지, 혹은 비서직인지, 생산직인지, 아니면 가구를 방문해서 통신선을 설치하는 기사인지, 등; 이런 내용에 따라서 응답자의 직업이 달리 구분됨</li> <li>• <b>식당에서 일한다:</b> 사장님인지,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하는지, 설거지 일만 하는지, 배달일만 하는지, 등; 이런 내용에 따라서 응답자의 직업이 달리 구분됨</li> </ul>
46, 47	<b>배우자의 일 관련 문항:</b> 응답자의 일 관련 문항과 동일한 내용. 위의 내용 참조
48	<p><b>가구소득:</b> 응답자가 응답하기를 상당히 꺼리는 질문임. 그러나 연구를 위해서 소득에 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하므로 응답을 반드시 얻어 내도록 노력해야 함.</p> <p>a) 소득은 '월평균 소득'임을 명시할 것 (농업인 경우 연간 산출물을 얘기할 때가 많은 데 이 때는 연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서 기입할 것)</p> <p>b) 응답자가 응답을 꺼리면 '선생님께서 직접 써 주시겠어요?' 라고 하면서 응답자가 쓰도록 중용해 봄</p> <p>c) 노인이나 농사를 짓는 사람의 경우, '수입 없다' '적자다'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음. 이때는 '자녀분들이 혹 용돈을 주시나요' '채소를 주위에 파시지는 않나요?' 등의 프로빙을 시도해서 응답을 얻어내도록 함</p>

## (2) ISSP 「사회불평등」 모듈 설문

「사회불평등」은 사회적 불평등과 형평 인식, 실제소득과 공정소득 간의 불일치, 빈부격차, 사회이동과 관련해서 응답자의 첫번째 직업과 현재의 직업, 성장시 아버지의 직업과 어머니의 직업, 소득 분배 관련 정부의 역할, 계층과 납세, 계층과 공정성, 계층간 갈등,

소득 결정요인, 급여 공정성, 계층관, 가정내 계층적 배경 등을 다루고 있다.

설문 내용이 포괄적인 뿐만 아니라 유사한 질문 유형이 반복적으로 제시되면서 질문하는 시점과 그 대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특히 설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조사는 원지조사에서 막힘없이 설문을 진행하기 위해 사전에 설문지를 꼼꼼히 읽고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특히 본인과 배우자의 최근 직업, 본인의 첫번째 직업, 성장시 아버지의 직업과 어머니의 직업 등 산업/직업을 질문하는 문항이 5개가 나열되어 있는데, 산업/직업은 "2009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집"에 실린 산업/직업 분류표를 반드시 사전에 참고해야 한다. 산업/직업은 분류 항목이 많고 까다로워 상세하게 답변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ISSP 「사회불평등」 모듈 설문 문항별 내용 및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ISSP 「사회 불평등」 모듈 설문 문항별 내용 및 주의 사항

문항번호	주의 사항
53, 58	<b>직업별 월평균 수입(실제와 당위) :</b> 53번은 해당 직업별 월평균 수입이 실제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가를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짐작하는 대로 응답하도록 묻는다. 이때 월평균 수입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으로 일반적인 말하는 연봉 개념이되 한 달 수입을 기준으로 한다. 이와 유사한 58번은 실제 수입이 아니라 응답자가 생각하기에 해당 직업별 월평균 수입이 얼마가 되어야 하겠는가라는 당위를 묻는 것이다. 만약 응답자가 '앞의 질문과 같은 것 아닌가'라고 하면, 실제 수입과 당위 수입이라는 핵심적 차이를 설명하면서 응답을 이끌어 내면 된다.
54, 71	<b>본인 성취 노력 :</b> 54번은 응답자가 직무나 일에 있어서 성취하기 위한 자세를, 71번은 응답자가 15세 때 즉 학교 생활에서 학업 성취를 위해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에 대해 묻는다.
55	<b>성공 요인 :</b> 제시된 여러 사항들이 각각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 얼마나 중요한가를 묻는다.
56, 66	<p><b>본인 보수의 정당성 :</b> 56번은 응답자 생각에 본인이 받아야 할 보수보다 적게 받는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반면 66번은 응답자 본인의 "능력이나 노력에 비추어 볼 때" 소득이 어떻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즉 본인의 능력과 노력에 응당한 소득인가를 묻는 것이다.</p> <p>*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응답자가 혼란스러워 하거나 '앞에서 물어 놓고 왜 또 물어 보나'라는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은 a) 56번은 본인 보수/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충분성, 66번은 본인 능력과 노력에의 응당성이라는 차이가 있음을 설명, b) '같이 보이지만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구분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면 학자들이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응답을 이끌어 낸다.</p>
57	<b>사회 공정성 :</b> 우리 사회의 기회 공정성에 대해 묻는다.



59	<b>정부 역할</b> :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정부 역할을 질문한다.
60.1, 60.2	<b>세금 공정성</b> : 60.1번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조세부담율에 대해, 60.2번은 현재 한국 고소득자가 내는 세금의 적절성에 대해 묻는다.
61.1, 61.2	<b>기회 공정성</b> : 고소득자가 저소득자에 비해 더 나은 의료 혜택과 자녀 교육 기회를 갖는 것이 공정한가에 대해 묻는다.
63	<b>집단 갈등</b> : 한국 사회에서 집단간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한가에 대해 묻는다. 이때, 집단 간 차이 자체를 묻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인지하는가를 묻는 것이다.
63.1, 63.2	<b>사회 계층</b> : 본인의 사회 계층을 1점(최하층)부터 10점(최상층)으로 응답하되, 63.1번은 본인이 현재 속한 계층을, 63.2번은 응답자 성장기 가족 계층을 기준으로 한다.
64	<b>사회 이동</b> : 응답자의 현재 직업과 응답자가 15세(중학생 시절) 때 아버지 직업 지위를 비교 평가하는 질문이다.
65	<b>소득 결정 요인</b> : 제시된 요인들이 일반적으로 소득 결정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묻는다.
67.1, 67.2	<b>사회 계층 유형</b> : 제시된 사회 유형 그림(보기카드) 가운데 67.1번은 현재의 한국 사회 유형이 어떠한가를, 67.2번은 한국 사회가 어떤 유형이 되어야 하는가를 각각 묻는다.
68.1, 68.2	<b>아버지 직업</b> : 응답자 성장기 아버지가 일했던 노동 부문과 구체적 직업, 산업에 대해 묻는다. * 부문(사기업, 정부, 자영업 부문)의 구분은 직장의 소유 주체와 관련이 된다. 개인이나 민간 법인이 소유한 기업인가, 중앙 및 지방 정부 소속 기관인가, 본인이 스스로 운영하는 업체인가에 따라 구분된다. 가령 사기업 부문은 민간의 자본을 출자해 영리를 목적으로 민간인에 의해 영위되는 일체의 개별 경제부문을 이른다. * 교사의 경우 국공립 학교에 재직하면 정부 부문에, 사립학교 교사라면 사기업 부문에 해당된다. * 정확한 직업(직종, 산업, 직위 등) 조사를 위해서는 [2009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집]에 실린 <산업>, <직업> 분류표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69.1	<b>어머니 경력 단절</b> : 응답자 성장기에 어머니의 직업 유무와 이직 시점에 대해 묻는다.
69.2, 69.3	<b>어머니 직업</b> : 응답자 성장기 어머니가 일했던 노동 부문과 구체적 직업, 산업에 대해 묻는다.
70	<b>문화 자본</b> : 응답자가 15세 때 가족이 살던 집에 책이 얼마나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만약 응답자가 혼자 하숙이나 자취를 했을 경우 하숙방이나 자취방은 해당되지 않는다.
72.1, 72.2	<b>정규 교육 마친 후 첫 번째 일</b> : 응답자가 정규교육을 마친 뒤에 한 첫 번째 일을 묻는다. * 여기서 정규 교육은 정식으로 규정된 학제와 교육 강령에 따라 진행되는 교육(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원) 등에서 받은 교육을 의미한다. 여기에 야간 대학, 사이버대학, 방송통신 대학, 학점은행제에 등록한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73	<b>주관적 계급 의식</b> : 6개 계급 분류 가운데 본인이 속한다고 생각하는 계급을 묻는다.
74.1	<b>부동산 재산(집)</b> : 응답자와 응답자의 직계 가족 중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가구원(37번 가구표 상의 직계 가족 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집이나 아파트를 판단면 재산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이때 집을 사기 위해 빌린 부채는 모두 제해야 한다. * 여기서의 부채는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직계가족이 집이나 아파트 등 집을 구입하기 위하여 빌린 돈을 의미하며, 주택융자금, 전세보증금, 대출 등이 포함된다. * 계산법이 다소 복잡하고, 재산에 대한 질문이라 민감할 수 있다. 조사원은 계산법에 대해 숙지

	하고(프로빙 참고), 수집된 정보는 통계법에 따라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고 유출될 우려가 없음을 거듭 강조한다.
74.2	<b>금융 자산</b> : 응답자와 응답자 직계 가족 중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가구원(37번 가구표 상의 직계 가족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전·월세 보증금, 저축, 증권, 채권 등을 현금으로 환산 후 거기서 부채(집을 사기 위해 빌린 부채 제외)를 제하고 나면 얼마나 남는가에 대해 묻는다. 이 질문 역시 조사원이 계산법을 숙지하여야만 자질 없는 조사가 가능하다(프로빙 참고). * 여기서의 부채는 집을 사기 위해 빌린 돈을 제외하고, 개인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의 총액을 의미한다. * 증권(주식 등)의 경우는 구입 당시 구매액이 아니라 조사 당시의 시세평가액으로 조사한다. * 적금이나 계돈의 경우는 조사 시점까지 불입(납부)한 총액을 이른다.
75	<b>기회 불평등</b> : 교육, 취업, 승진, 법 등 제시된 사항별 평등 또는 불평등 정도를 묻는다. 이때 ‘지역 간’은 지역 간(예: 수도권과 비수도권, 경상도와 전라도)에 사회경제문화·정치 등 여러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평등/불평등한 정도를 이른다.
76	<b>사회경제적 성공도</b> : 본인이 현재 사회경제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는가에 대한 주관적 의식을 묻는다.
77	<b>직업 위세</b> : 제시된 30개 직업별 사회적 지위의 높고 낮음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을 묻는다.
78	<b>동일노동 임금 결정요인</b> : 동일한 노동을 할 때 제시된 조건별(가령 근속 년수, 교육 수준, 성별, 연령 등)로 보수를 더 받는 것이 당연한가에 대해 응답자의 의견을 묻는다.
79, 80	<b>가족관련 일의 수행과 결정 주체</b> :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질문이다. * 자녀 훈육 및 교육 : 자녀가 없다면 해당되지 않는다(비해당). 다만 자녀가 모두 장성하거나 결혼 후 분가해서 자녀 훈육 및 교육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옛날에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했는지 물어야 한다. * 본인 부모님 지원 : 응답자가 고아이거나, 결혼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비해당이다. 다만 응답자가 결혼한 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생존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물어야 한다.

### (3) 특별 주제 「형평과 공정성 V」 모듈 설문

〈표〉 특별 주제 「형평과 공정성 V」 모듈 설문 주의사항

문항 번호	주의 사항
	임금근로자의 판단 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44.1	1) 기본적으로 Q.44.1에서 ① ‘피고용인’이라고 답변한 경우에 해당함 2) 임금근로자란 일정한 직장에서 장기 혹은 단기 고용자로 사용주와의 계약관계를 전제로 함. 3) 동일한 직업(예, 과외선생님)의 경우: 보통 학원강사는 자영업이나 회사의 소개로 과외를 하게 되고 회사에 수수료를 지불할 경우는 임금근로자로 분류됨
92~101	직장에서의 공정성에 관한 질문은 임금근로자에게만 해당됨

## 부 록

## 1. 2009 KGSS 조사일정

[2월 27~28일(금·토)] 1차 연구원보 Workshop : KGSS 소개 및 연구원보 역할 설명

[3월 1일~3월 28일] 표집틀 작성

[3월 1일~4월 30일] 면접 조사원 모집

[5월 9~10일(토·일)] 2차 연구원보 Workshop

: 조사원 모집 결과, 표집 결과, 사전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방안 논의

[5월 11일~31일] 2009 KGSS 설문 사전조사 실시, 3주동안 실시

[6월 19~20일(금·토), 한국사회학회대회] 제6회 KGSS 심포지움 개최

[6월 26~27일(금·토), 경기도 용인] 면접조사원 오리엔테이션

[6월 28일 ~ 7월 18일] 2009 KGSS 본 조사, 3주동안 실시

[7월 19일 ~ 8월 1일] 2009 KGSS 보충 조사, 2주동안 실시

[8월 2일 ~ 31일] 2009 KGSS 확인 조사

: 검표(check) / Validations / Coding(手작업) 병행

[9월 1일 ~ 30일] 2009 KGSS Editing & Punching

[9월 12일·13(토·일)] 3차 연구원보 Workshop : 2009 KGSS 평가 및 개선방안 논의

[10월 ~ 12월] 2009 KGSS Data Cleaning

## 2. 현지조사 조직 및 연락망

번호	지역	학교	협력교수님	연구원보	휴대폰
1	서울/경기	국민대	이장영	신송은	010-9186-0124
2	서울/경기	서강대	이재혁	조세희	010-8924-9230
3	서울/경기	송실대	정재기	유명옥	011-9832-3628
4	서울/경기	성균관대	김석호	최진석	010-3288-7486
5	서울/경기	이화여대	최셋별	김승민	010-9887-7057
6	서울/경기	한양대	김두섭	윤옥진	010-3156-1540
7	서울/경기	경기대	민수홍	최혜영	010-2527-0402
8	서울/경기	인천대	유문무	김형래	010-5738-5783
9	강원/경기	강원대	정성호	이규용	010-4530-4753
10	강원/경기	한림대	엄한진	박성우	010-5210-3193
11	충북	청주대	이정환	유미정	010-8459-8737
12	충남	남서울대	이주열	박혜림	010-6311-7048
13	충남	충남대	박재목	박서희	010-5183-3460
14	대구/경북	경북대	조주은	방성진	010-2015-5484
15	대구/경북	계명대	임영규	곽민호	010-7205-4779
16	부산/울산/경남	경상대	최태룡	안주현	010-4785-4255
17	부산/울산/경남	동아대	송유진	손병국	010-3434-4839
18	부산/울산/경남	울산대	전성표	이진수	010-4192-2438
19	부산/울산/경남	부산대	김희재	최수연	010-4192-2438
20	전북	전북대	김영정	이계승	010-8990-7401
21	전남	순천대	장상수	김도형	011-357-0080
22	제주	제주대	장신옥	-	-

### 3. SRC 조직 및 연락망

구분	성명	연구실	휴대폰	E-mail
소장	양종회	760-0409	011-9883-0227	jhyang@skku.edu
연구책임	김상옥	760-0412	010-3014-0412	swkim@skku.edu
연구실장	김석호	760-0406	010-2905-9882	seokhok@skku.edu
연구교수	박병진	760-0709	011-794-5212	bipark111@hanmail.net
	김소임		010-4270-9024	sisw1125@hanmail.net
연구원	전은주		010-6327-7064	self0907@hanmail.net
연구조교	김태형	760-1270	010-4735-1521	982211@hanmail.net
	김혁우		011-9894-1863	miheaven@empal.com
	박성일	742-1270	010-6239-2059	parks-si@hanmail.net
	강지환		010-4714-1642	only81kjh@naver.com
	여제구		010-4619-9423	carpe_jk@nate.com

### 4. 표본추출지역

NO.	조사구		NO.	조사구		NO.	조사구	
서울특별시			경기도			142	파주시	금촌2동
1	강남구	논현제1동	101	고양시덕양구	행신3동	143	평택시	안중읍
2	강남구	대치제1동	102	고양시덕양구	화정1동	144	포천시	소흘읍
3	강남구	대치제2동	103	고양시일산동구	중산동	145	하남시	신정2동
4	강남구	도곡제2동	104	고양시일산서구	일산3동	146	화성시	봉담읍
5	강동구	길동	105	광주시	송정동	인천광역시		
6	강동구	명일제1동	106	광주시	초월읍	151	계양구	계양1동
7	강동구	성내제2동	107	구리시	동구동	152	계양구	계양2동
8	강동구	암사제1동	108	김포시	풍무동	153	계양구	작전서운동
9	강북구	송중동(미아4동)	109	남양주시	와부읍	154	남동구	구월1동
10	강북구	송천동(미아8동)	110	남양주시	호평동	155	남동구	논현고잔동
11	강서구	화곡제1동	111	남양주시	화도읍	156	부평구	부개3동
12	관악구	은천동	112	부천시소사구	소사본3동	157	부평구	부평4동
13	광진구	자양제3동	113	부천시오정구	원종1동	158	부평구	산곡2동
14	구로구	고척제2동	114	성남시분당구	구미동	159	부평구	청천2동
15	금천구	시흥제1동	115	성남시분당구	이매1동	160	서구	검단4동
16	노원구	상계3.4동	116	성남시분당구	정자1동	161	서구	연희동
17	노원구	월계2동	117	성남시중원구	성남동	강원도		
18	노원구	월계3동	118	성남시중원구	은행2동	201	강릉시	성덕동
19	노원구	중계2.3동	119	수원시영통구	매탄3동	202	강릉시	주문진읍
20	도봉구	방학제1동	120	수원시영통구	태장동	203	속초시	노학동
21	도봉구	방학제3동	121	시흥시	군자동	204	원주시	단계동
22	도봉구	창제1동	122	시흥시	대야동	205	원주시	단구동
23	동작구	대방동	123	시흥시	연성동	206	춘천시	석사동
24	마포구	성산제2동	124	시흥시	정왕1동	충청남도		
25	서대문구	북가좌제2동	125	안산시단원구	초지동	251	공주시	신관동
26	서대문구	연희동	126	안산시상록구	월피동	252	아산시	배방면
27	성북구	석관동	127	안양시동안구	부림동	253	예산군	예산읍
28	송파구	가락제2동	128	안양시동안구	비산1동	254	천안시동남구	신방동
29	송파구	삼전동	129	양주시	양주2동	255	천안시동남구	신안동
30	송파구	오금동	130	여주군	여주읍	256	천안시서북구	성환읍
31	송파구	장지동	131	용인시수지구	상현1동	257	천안시서북구	쌍용2동
32	양천구	목2동	132	의왕시	부곡동	258	홍성군	홍성읍
33	양천구	목5동	133	의왕시	오전동	대구광역시		
34	양천구	신정3동	134	의정부시	가능1동	281	달서구	상인1동
35	양천구	신정7동	135	의정부시	송산1동	282	달서구	용산2동
36	영등포구	문래동	136	의정부시	송산2동	283	달서구	이곡1동
37	은평구	구산동	137	의정부시	신곡1동	284	달서구	진천동
38	은평구	대조동	138	의정부시	신곡2동	285	동구	안심1동
39	은평구	불광제1동	139	의정부시	호원1동	286	북구	동천동
40	은평구	응암제3동	140	파주시	교하읍	287	북구	무대조아동
41	종로구	면목제3.8동	141	파주시	금촌1동	288	북구	태전1동

NO.	조사구		NO.	조사구		NO.	조사구	
289	북구	대전2동	부산광역시			559	포항시남구	효곡동
290	수성구	고산2동	501	기장군	기장읍	560	포항시북구	우창동
대전광역시			502	동래구	수민동	561	포항시북구	장량동
291	대덕구	송촌동	503	동래구	온천제3동	전라남도		
292	서구	둔산2동	504	북구	구포제3동	601	광양시	광양읍
293	유성구	신성동	505	북구	만덕제3동	602	목포시	원산동
294	유성구	온천2동	506	사상구	모라제1동	603	순천시	왕조1동
295	유성구	전민동	507	사상구	엄궁동	604	순천시	왕조2동
296	유성구	진장동	508	사하구	다대제2동	605	여수시	여서동
충청북도			509	연제구	연산제9동	606	여수시	여천동
301	청원군	오창읍	510	해운대구	반송제2동	607	영광군	영광읍
302	청주시상당구	금천동	511	해운대구	반여제1동	608	화순군	화순읍
303	청주시상당구	용암1동	512	해운대구	재송제1동	광주광역시		
304	청주시상당구	율량.사천동	513	해운대구	좌제2동	631	광산구	신가동
305	청주시흥덕구	봉명2.송정동	514	해운대구	좌제4동	632	광산구	첨단2동
306	충주시	종민동	울산광역시			633	남구	효덕동
경상남도			531	남구	무거동	634	북구	용봉동
401	거창군	거창읍	532	남구	신정2동	635	서구	치평동
402	김해시	내외동	533	울주군	범서읍	636	서구	풍암동
403	김해시	북부동	534	울주군	연양읍	전라북도		
404	김해시	장유면	535	중구	다운동	651	군산시	나운2동
405	양산시	물금읍	경상북도			652	익산시	상성동
406	진해시	웅동2동	551	경산시	서부1동	653	전주시덕진구	송천2동
407	창원시	가음정동	552	경산시	진량읍	654	전주시덕진구	인후3동
408	창원시	명곡동	553	경주시	동천동	655	전주시완산구	삼천3동
409	창원시	반송동	554	경주시	안강읍	656	전주시완산구	서신동
410	창원시	봉림동	555	경주시	황성동	657	전주시완산구	평화2동
411	창원시	사파동	556	구미시	상모사곡동	제주도		
412	창원시	용지동	557	포항시남구	연일읍	681	제주시	연동
413	창원시	팔룡동	558	포항시남구	오천읍	682	제주시	일도2동

## 5. 면접 기록표

표본 가구의 만18세 이상 가구원 리스트(예시)

표본 가구 주소: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719 푸른마을아파트 108-1101

가구 번호	
0	2

\* 표본 가구에서 다음 표를 작성하고 조사대상자에 ○ 표 하십시오.

가구원 번 호	이 름	가구주와의 관계	생 일 (양력/음력 상관없음)	가구원 번 호	이 름	가구주와의 관계	생 일 (양력/음력 상관없음)
1	홍길동	본인	5 월 17 일	6	홍연우	딸	8 월 30 일
2	최영희	처	9 월 19 일	7			__ 월 __ 일
3	홍철수	아들	4 월 5 일	8			__ 월 __ 일
4	홍철우	아들	9 월 8 일	9			__ 월 __ 일
5	홍연정	딸	6 월 7 일	10			__ 월 __ 일

표본 가구 방문기록(예시)

횟수	방 문 일 시	완료여부	미완료 이유	
1	7 월 1 일 금요일 5 시 (오전/오후)	미완	방문을 했으나, 아무도 없었음	<input type="text"/>
2	7 월 3 일 일요일 7시 (오전/오후)	미완	응답자 또는 가구원이 재방문을 요청함	<input type="text"/>
3	7 월 4 일 월요일 11시 (오전/오후)	미완	1차 면접거부	<input type="text"/>
4	7 월 7 일 목요일 7 시 (오전/오후)	완료	완료	<input type="text"/>
5	__ 월 __ 일 __요일 __ 시 (오전/오후)			<input type="text"/>
6	__ 월 __ 일 __요일 __ 시 (오전/오후)			<input type="text"/>
7	__ 월 __ 일 __요일 __ 시 (오전/오후)			<input type="text"/>



영수증 첨부지			
영수증 합계 금액 (본페이지)	원	영수증 매수 (본페이지)	매
영수증 붙이는 곳			

주: 영수증을 붙인후 영수증과 첨부지가 겹쳐지는 부분에 날인하시고 영수증은 서로 겹쳐지지 않아야함.